

#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

(2020.12.31. 현재)

## 분석 보고서

2021. 4. 8.

# 목 차

## 기초 분석 보고서

I. 신자 현황	2
1) 인구 대비 신자 현황	2
(1) 총인구 대비 신자 수	2
(2) 교구별 관할 지역 인구 대비 신자 수	3
(3) 연령별 인구 대비 신자 비율	5
2) 신자 구성	8
(1) 연령별/성별 신자 구성	8
(2) 교구별 신자 규모	11
II. 본당과 공소 현황	14
III. 성직자와 신학생 현황	17
1) 성직자 수와 신학생 수	17
2) 교구 소속 신부	21
IV. 수도회 및 수도자 현황	25
1) 수도회 및 수도자 수	25
(1) 남자 수도회	25
(2) 여자 수도회	27
2) 사도직 활동 현황	29
V. 성사 활동	31
1) 세례성사	31

(1) 총 영세자 수 .....	31
(2) 연령별 영세자 수 .....	33
(3) 교구별 영세자 수 .....	36
2) 주일 미사, 판공성사 .....	39
3) 혼인성사 .....	41
4) 견진, 병자, 영성체, 고해 성사 .....	43
VI. 주일학교 .....	44
VII. 해외 선교 .....	46
VIII. 신앙 교육 .....	49
IX. 사회 사업 .....	51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을 통해 바라본 사목적 시사점**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을 통해 바라본 사목적 시사점 .....	54
---	----

# 기초 분석 보고서

# I. 신자 현황

## 1) 인구 대비 신자 현황

### (1) 총인구 대비 신자 수

- ▶ 한국 천주교회 신자 수는 5,923,300명으로 전년 대비 0.1%(8,631명) 증가
- ▶ 총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11.2%로 전년 대비 0.1%p 증가

- 2020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천주교회 신자 수는 5,923,300명으로 전년 대비 0.1%(8,631명) 증가하였다. 이는 총인구 52,974,563명<sup>1)</sup>의 11.2%에 해당한다.
- 총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11.2%로 작년보다 0.1%p 증가하였다. 그러나 신자 비율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살펴보면 11.18%로 나타나 2019년 11.13%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총인구 52,974,563명은 전년보다 0.3%(147,10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2020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는 51,829,023명으로 전년보다 20,838명이 감소하여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사상 첫 인구 자연 감소를 보였다. 이는 출생자 급감이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 제공 등록외국인인구는 1,145,540명으로 전년보다 126,267명이 감소하였다.
- 신자 증가율은 2010년부터 매년 1%대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1% 아래로 떨어졌다.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이긴 하나 2020년에는 0.1%로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영세자 수가 급감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2021년에는 어느 수준으로 증가율을 회복할지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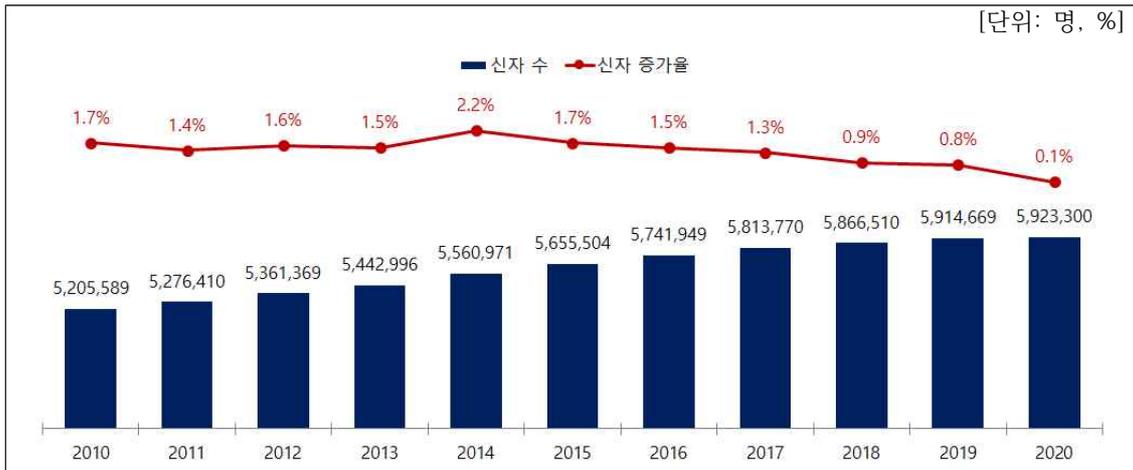
<표 1> 2010-2020년 총인구 대비 신자 수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인구(명)	51,434,583	51,716,745	51,881,255	52,127,386	52,419,447	52,672,425
신자 수(명)	5,205,589	5,276,410	5,361,369	5,442,996	5,560,971	5,655,504
총인구 대비 신자 비율(%)	10.1(10.12)	10.2(10.20)	10.3(10.33)	10.4(10.44)	10.6(10.61)	10.7(10.74)
신자 증가율(%)	1.7	1.4	1.6	1.5	2.2	1.7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인구(명)	52,857,893	52,950,306	53,072,685	53,121,668	52,974,563	

1) 총인구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 51,829,023명과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등록외국인인구 1,145,540명을 합산한 것이다.

신자 수(명)	5,741,949	5,813,770	5,866,510	5,914,669	5,923,300
총인구 대비 신자 비율(%)	10.9(10.86)	11.0(10.98)	11.1(11.05)	11.1(11.13)	11.2(11.18)
신자 증가율(%)	1.5	1.3	0.9	0.8	0.1

<그림 1> 2010-2020년 신자 수 추이



## (2) 교구별 관할 지역 인구 대비 신자 수

- ▶ 관할 지역 인구가 증가한 교구는 청주, 의정부 교구 외 5개 교구임
- ▶ 의정부, 제주 교구 신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0.8% 증가함
- ▶ 관할 지역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서울, 제주, 인천 순으로 높음

- 청주교구 관할 지역 내 인구는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고 의정부 인구는 1.6%가 증가하여 다른 지역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안동 인구는 1.5% 감소, 대구 1.0% 감소, 서울, 광주, 전주 내 인구는 각각 0.8%가 감소하였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의 인구가 81,520명 감소하였으나 그 외 지역(의정부, 수원, 인천)은 총 137,561명이 증가하였다.
- 의정부교구와 제주교구의 신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0.8%가 증가하여 다른 지역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신자 수가 감소한 교구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서울대교구만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부산, 마산, 안동, 광주, 군중 교구에서 신자 수가 감소하였다. 2020년 군중교구의 신자 수가 5.6%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군대 내 종교 활동이 여의치 않아 영세자 수가 급감(2019년 대비 -78.7%)한 결과이다.
- 한편, 2020년 서울대교구 신자 수 증감 요인 가운데 교적 재작성으로 인한 증가가

65,057명, 교적 정리로 인한 감소가 64,061명으로 나타나 교적 정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의정부교구는 전년 대비 관할 지역 내 인구가 크게 늘면서 신자 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세는 의정부교구의 본당 신설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3개 본당 신설, 표 11 참고).

<표 2> 전년 대비 교구 관할 인구 및 신자 증감률(2019년, 2020년)

	관할 인구(명, %)				신자(명, %)			
	2019년 증감(률)		2020년 증감(률)		2019년 증감(률)		2020년 증감(률)	
서울	250,417	2.6	-81,520	-0.8	-959	-0.1	5,143	0.3
춘천	-15,183	-1.4	-4,954	-0.4	908	1.0	432	0.5
대전	4,162	0.1	1,750	0.0	4,828	1.5	820	0.2
인천	-56,673	-1.3	24,738	0.6	4,585	0.9	630	0.1
수원	-75,669	-0.9	61,537	0.7	12,565	1.4	3,345	0.4
원주	-19,113	-2.1	6,735	0.8	975	1.2	266	0.3
의정부	48,006	1.5	51,286	1.6	6,029	1.9	2,430	0.8
대구	-26,986	-0.6	-42,648	-1.0	3,924	0.8	144	0.0
부산	-23,743	-0.4	-40,638	-0.7	2,381	0.5	-363	-0.1
청주	2,674	0.2	39,442	2.7	1,398	0.8	363	0.2
마산	7,448	0.3	-11,676	-0.5	1,261	0.7	-251	-0.1
안동	-4,413	-0.6	-10,722	-1.5	417	0.8	-8	0.0
광주	-14,596	-0.4	-26,889	-0.8	1,952	0.5	-121	0.0
전주	-17,915	-1.0	-14,813	-0.8	1,341	0.7	44	0.0
제주	-21,621	-3.1	4,224	0.6	1,119	1.4	672	0.8
군종	-	-	-	-	5,435	6.7	-4,915	-5.6
합계	48,983	0.1	-147,105	-0.3	48,159	0.8	8,631	0.1

- 2020년 교구별 관할 지역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서울 15.4%, 제주 12.2%, 인천 11.9%, 청주 11.7%, 대구 11.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구에서 전년과 동일하거나 0.1%p 오른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8만 여명 인구가 감소한 서울에서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이 0.2%p 올랐으며 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청주와 의정부 교구에서 신자 비율이 감소하였다.

<표 3> 2010-2020년 교구별 관할 지역 인구 대비 신자 비율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13.4	13.6	13.8	14.5	14.8	15.0	15.3	15.0	15.6	15.2	15.4
춘천	7.2	7.5	7.4	7.4	8.4	7.8	7.8	7.9	8.0	8.2	8.3
대전	7.7	7.7	7.7	7.8	8.1	8.2	8.3	8.4	8.4	8.5	8.5
인천	10.1	10.2	10.3	10.7	11.4	11.4	11.6	11.6	11.7	11.9	11.9
수원	10.3	10.4	10.6	10.7	10.9	11.0	10.9	10.7	10.7	10.9	10.9

원주	8.7	8.7	8.8	8.9	8.9	9.0	8.8	9.0	8.7	9.0	9.0
의정부	9.3	9.1	9.2	9.4	9.7	9.7	9.6	9.7	10.1	9.8 <sup>2)</sup>	9.7
대구	10.2	10.4	10.4	10.5	10.7	10.9	11.0	11.1	11.3	11.4	11.5
부산	7.6	7.6	7.6	7.8	7.9	7.9	8.0	8.1	8.2	8.3	8.3
청주	11.0	11.0	11.1	11.2	11.3	11.6	11.7	11.8	11.9	12.0	11.7
마산	6.5	6.6	6.6	6.6	6.8	6.8	6.9	7.3	7.2	7.2	7.2
안동	6.3	6.5	6.3	6.6	6.8	6.9	7.0	7.2	7.3	7.4	7.5
광주	9.9	9.9	10.0	10.1	10.3	10.4	10.5	11.0	10.7	10.8	10.9
전주	9.9	10.0	10.1	10.2	10.3	10.4	10.6	10.7	10.9	11.1	11.2
제주	12.0	11.9	11.9	11.9	11.9	11.8	11.7	11.6	11.6	12.1	12.2

### (3) 연령별 인구 대비 신자 비율

- ▶ 연령별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특히 고령 신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 고령 신자에 대한 더 면밀한 교적 정리가 필요

- 2020년 주민등록인구의 연령별 구성 비율과 신자의 연령별 구성 비율을 비교해 보면, 19세 이하까지 1%p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주민등록인구의 점유율이 앞서고 있다. 그러나 20세부터 그 차이가 줄어 25세부터 1%p 미만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55세 이후부터는 신자 비율이 더 앞서게 된다.
- 2010년 통계와 비교해 보면 54세 이하 전 구간에서 신자 비율이 10년 전보다 낮아졌으며 55세부터는 2020년의 신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차를 보이고 있다.
- 60세 이상에서 주민등록인구 비율과 신자 비율 모두 10년 전보다 증가하였으나 주민등록인구 비율의 차보다 신자 비율의 차가 더 크게 나타나 10년 전보다 고령 신자 비율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 19세 이하 영유아·청소년 인구 및 신자 연령별 구성 비율은 10년 동안 대체로 비슷한 차이로 감소하고 있으나 0-4세에서 인구 비율이 더 큰 차로 감소하였다. 이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매년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 기인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결혼 건수도 줄어 2021년에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4세는 군종교구의 영향으로 신자 수가 많이 나타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종교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영세자 수가 급감하여 신자 비율의 차가 인구 비율의 차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19년 통계에 10.3%였으나 인구가 잘못 입력되어 정정하니 9.8%로 나타났다.

<그림 2> 주민등록인구와 신자 연령별 구성비



<표 4> 주민등록인구와 신자 연령별 구성비의 차

구분	2010년			2020년			2020-2010	
	A 주민등록 인구 비율 (%)	B 신자 비율 (%)	A-B(%p)	A 주민등록 인구 비율 (%)	B 신자 비율 (%)	A-B(%p)	주민등록 인구 비율 차	신자 비율 차
0-4세	4.6	1.3	3.3	3.2	0.6	2.6	-1.4	-0.7
5-9세	4.9	2.4	2.5	4.4	1.8	2.6	-0.5	-0.6
10-14세	6.5	4.4	2.1	4.5	2.5	2.0	-2.0	-1.9
15-19세	7.1	5.9	1.2	4.7	3.0	1.7	-2.4	-2.9
20-24세	6.2	6.6	-0.4	6.3	5.4	0.9	0.1	-1.2
25-29세	7.4	7.8	-0.4	6.9	7.6	-0.7	-0.5	-0.2
30-34세	7.8	7.6	0.2	6.1	6.3	-0.2	-1.7	-1.3
35-39세	8.7	8.3	0.4	7.2	7.5	-0.3	-1.5	-0.8
40-44세	8.9	9.0	-0.1	7.6	7.6	0.0	-1.3	-1.4
45-49세	8.6	9.6	-1.0	8.4	8.2	0.2	-0.2	-1.4
50-54세	8.1	10.1	-2.0	8.5	8.7	-0.2	0.4	-1.4
55-59세	5.9	7.7	-1.8	8.2	9.1	-0.9	2.3	1.4
60-64세	4.5	5.5	-1.0	7.6	9.5	-1.9	3.1	4.0
65-69세	3.8	4.3	-0.5	5.4	7.0	-1.6	1.6	2.7
70-74세	3.1	3.4	-0.3	4.0	5.1	-1.1	0.9	1.7
75-79세	2.1	2.5	-0.4	3.1	3.8	-0.7	1.0	1.3
80세 이상	1.9	3.4	-1.5	3.9	6.1	-2.2	2.0	2.7
연령 미상	-	0.1	-	-	0.2	-	-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 24세 이하에서 신자 비율은 연령 구간별로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20-24세의 신자 비율은 예년과 달리 2020년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군종교구에서 2020년 영세자 수가 줄어 새 신자의 유입이 줄어든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 연령별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65세 이상의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15.3%로 전 연령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2년에는 동 구간의 비율이 13.6%였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65세 이상을 더 세부적으로 연령 구간을 나눠 살펴보면 80세 이상에서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이 18.1%로 가장 높다. 이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고령 신자 비율이 인구 수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고령 신자에 대해 더 면밀한 교적 정리가 필요함을 드러낸다 하겠다. 나아가 85세 이상의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을 보면 23.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0년 전부터 해마다 22~25%의 비율을 보인다.

<표 5> 연령에 따른 주민등록인구 대비 신자 비율(신자 수/주민등록인구\*100)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4세	2.9	2.9	2.9	2.9	2.9	2.8	2.8	2.7	2.2
5-9세	5.0	5.0	5.1	5.1	5.0	5.0	4.9	4.8	4.5
10-14세	6.8	6.7	6.7	6.7	6.7	6.6	6.6	6.5	6.3
15-19세	8.2	8.1	8.0	7.8	7.8	7.6	7.5	7.4	7.2
20-24세	10.8	10.6	11.5	11.7	11.7	11.3	10.9	10.5	9.8
25-29세	10.6	10.8	11.0	11.3	11.7	12.2	12.5	12.6	12.6
30-34세	10.7	10.9	11.1	11.3	11.5	11.7	11.8	11.9	11.9
35-39세	10.0	10.3	10.7	11.0	11.3	11.5	11.8	11.9	12.0
40-44세	10.5	10.5	10.5	10.5	10.7	10.8	11.0	11.3	11.5
45-49세	11.5	11.3	11.2	11.2	11.2	11.2	11.1	11.1	11.1
50-54세	12.6	12.5	12.4	12.3	12.2	12.1	11.9	11.7	11.7
55-59세	13.9	14.0	13.9	13.7	13.5	13.3	13.2	13.0	12.8
60-64세	13.2	13.7	14.1	14.4	14.5	14.6	14.6	14.4	14.2
65세 이상	13.6	13.8	14.0	14.2	14.3	14.5	14.8	15.1	15.3
65-69세	12.9	13.2	13.5	13.7	13.6	14.0	14.3	14.6	14.8
70-74세	11.7	12.0	12.4	12.8	13.2	13.8	14.0	14.3	14.4
75-79세	12.5	12.6	12.7	12.9	12.9	12.9	13.1	13.5	13.8
80세 이상	18.8	19.0	18.2	18.1	17.7	17.8	17.9	18.1	18.1
합계	10.5	10.6	10.8	11.0	11.1	11.2	11.3	11.4	11.4
* 85세 이상	24.8	25.3	23.6	23.4	22.8	22.9	23.1	23.0	23.0

- 합계는 연령 미상의 신자 수를 포함하였다.
- 2012년부터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수를 조사하였다.

## 2) 신자 구성

### (1) 연령별/성별 신자 구성

- ▶ 전체 신자 가운데 60-64세의 신자가 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 남성과 여성 신자의 비는 42.8% 대 57.2%
- ▶ 수원교구를 제외한 전 교구가 초고령 교구로 진입

- 전체 신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60-64세 구간의 신자가 9.5%로 가장 많고, 이어서 55-59세(9.1%), 50-54세(8.7%), 45-49세(8.2%) 구간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019년은 55-59세 구간이 9.5%<sup>3)</sup>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전인 2010년은 50-54세 구간의 신자가 10.1%로 가장 높았다. 가장 높은 비율의 연령 구간이 점차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0년 연령별 신자 비율과 비교하면 영유아·청소년(19세 이하)에서 비율의 차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55세 이상에서 비율의 차가 높은 것을 더 확연히 볼 수 있다. 10대 이하의 신자 비율은 14.0%에서 7.9%로 감소하였고 20-30대는 30.3%에서 26.8%로, 40-50대는 36.4%에서 33.6%로 감소하였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19.1%에서 31.5%로 증가하였다.
- 2020년 65세 이상 노인 신자의 비율은 전 신자의 22.0%를 차지하였다. 65세 이상의 신자 비율은 2010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표 8 참고). 특히 80세 이상에서 2010년 대비 104.3%(2010년 177,830명→2020년 363,357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대비 성별에 따른 연령별 신자 증감률을 보면 10대 이하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추세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20-40대에서는 남성 신자 수가 10년 전보다 증가하였고 여성 신자 수는 감소하였다. 한편, 2020년 60-64세 여성 신자는 10년 전보다 101.6%(2010년 172,567명→2020년 347,92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2010년과 2020년 연령별 신자 비교 및 2010년 대비 신자 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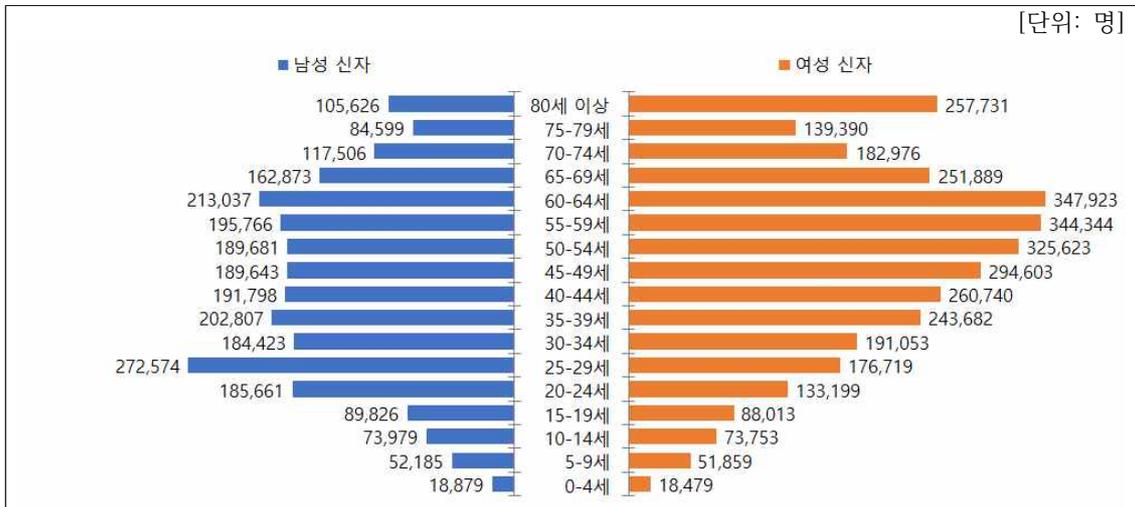
구분	신자 수(명)		신자 비율(%)		2010년 대비 신자 수 증감률(%)		
	2010년	2020년	2010년	2020년	전체	남성	여성
0-4세	68,139	37,358	1.3	0.6	-45.2	-45.7	-44.6

3) 2019년 연령별 신자 비: 0-4세 0.8%, 5-9세 1.9%, 10-14세 2.5%, 15-19세 3.3%, 20-24세 5.9%, 25-29세 7.4%, 30-34세 6.3%, 35-39세 7.9%, 40-44세 7.4%, 45-49세 8.5%, 50-54세 8.6%, 55-59세 9.5%, 60-64세 9.2%, 65-69세 6.3%, 70-74세 4.8%, 75-79세 3.7%, 80세 이상 5.7%, 연령 미상 0.2%.

5-9세	125,239	104,044	2.4	1.8	-16.9	-17.9	-15.9
10-14세	228,000	147,732	4.4	2.5	-35.2	-35.7	-34.7
15-19세	305,250	177,839	5.9	3.0	-41.7	-41.3	-42.2
20-24세	343,700	318,860	6.6	5.4	-7.2	1.2	-16.8
25-29세	408,931	449,293	7.8	7.6	9.9	33.9	-13.9
30-34세	397,722	375,476	7.6	6.3	-5.6	7.7	-15.6
35-39세	430,495	446,489	8.3	7.5	3.7	19.2	-6.4
40-44세	471,213	452,538	9.0	7.6	-4.0	10.8	-12.5
45-49세	502,140	484,246	9.6	8.2	-3.6	4.5	-8.1
50-54세	529,183	515,304	10.1	8.7	-2.6	-5.8	-0.7
55-59세	401,293	540,110	7.7	9.1	34.6	23.3	42.0
60-64세	288,156	560,960	5.5	9.5	94.7	84.3	101.6
65-69세	222,874	414,762	4.3	7.0	86.1	85.0	86.8
70-74세	179,589	300,482	3.4	5.1	67.3	80.1	60.0
75-79세	131,012	223,989	2.5	3.8	71.0	109.4	53.8
80세 이상	177,830	363,357	3.4	6.1	104.3	138.0	93.1
연령 미상	3,825	10,461	0.1	0.2	173.5	209.1	154.4
합계	5,214,591	5,923,300	100.0	100.0	13.6	17.1	11.1

□ 2020년 현재 남성과 여성 신자의 비는 42.8%(2,534,989명) 대 57.2%(3,388,311명)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10대 이하에서는 남성이 약간 높은 비율로 거의 대등하게 이어지다가 20대에서는 20% 가까이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30세 이상부터 여성 신자가 더 많게 나타난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남성 29.1% 대 여성 70.9%로 남녀 신자의 비율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림 3> 연령별 남녀 신자 수



<표 7> 2020년 연령별 신자 수 비교

구분	남성		여성		합계(명)
	신자 수(명)	비율(%)	신자 수(명)	비율(%)	
0-4세	18,879	50.5	18,479	49.5	37,358
5-9세	52,185	50.2	51,859	49.8	104,044
10-14세	73,979	50.1	73,753	49.9	147,732
15-19세	89,826	50.5	88,013	49.5	177,839
20-24세	185,661	58.2	133,199	41.8	318,860
25-29세	272,574	60.7	176,719	39.3	449,293
30-34세	184,423	49.1	191,053	50.9	375,476
35-39세	202,807	45.4	243,682	54.6	446,489
40-44세	191,798	42.4	260,740	57.6	452,538
45-49세	189,643	39.2	294,603	60.8	484,246
50-54세	189,681	36.8	325,623	63.2	515,304
55-59세	195,766	36.2	344,344	63.8	540,110
60-64세	213,037	38.0	347,923	62.0	560,960
65-69세	162,873	39.3	251,889	60.7	414,762
70-74세	117,506	39.1	182,976	60.9	300,482
75-79세	84,599	37.8	139,390	62.2	223,989
80세 이상	105,626	29.1	257,731	70.9	363,357
연령 미상	4,126	39.4	6,335	60.6	10,461
합계	2,534,989	42.8	3,388,311	57.2	5,923,300

- 교구별로 65세 이상의 신자가 교구 전체 신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보는 유엔의 기준에 따라 이를 교구에 대입시켜 각 교구의 고령화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군종교구 제외).
- 2020년 65세 이상 신자 비율은 수원을 제외한 모든 교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교구로 나타났다. 2011년 65세 이상 신자 비율이 14.3%로 나타나면서 한국 교회가 처음 고령 교회로 진입하였으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8년 만인 2019년에 20.5%로 초고령 교회가 되었다.

<표 8> 교구별 65세 이상 신자 비율(교구별 65세 이상 신자/전체 신자\*100)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14.5	15.4	16.3	17.2	17.5	18.3	18.5	19.6	20.6	22.0	23.7
춘천	17.6	18.4	19.7	20.4	20.9	21.4	21.7	23.0	24.0	25.4	26.9
대전	14.0	14.5	15.0	15.6	16.1	16.7	17.0	18.0	18.7	19.7	21.0
인천	12.8	13.4	14.1	14.7	15.3	15.9	16.4	17.4	18.3	19.5	20.9
수원	12.1	12.7	13.2	13.8	14.2	14.7	15.1	16.0	16.8	17.8	19.1
원주	17.4	17.5	18.2	18.9	18.9	19.4	19.7	21.0	22.0	23.1	24.6
의정부	13.5	14.0	14.7	15.2	15.7	16.2	16.5	17.3	18.1	19.1	20.4

대구	14.1	14.7	15.5	16.4	17.1	17.8	18.4	19.5	20.6	21.7	23.3
부산	12.9	13.6	14.4	15.3	16.1	17.0	17.8	19.1	20.4	21.8	23.6
청주	15.2	15.6	16.1	16.4	16.9	17.3	17.8	18.7	19.6	20.7	22.0
마산	12.3	12.9	13.6	14.4	14.9	15.6	16.3	17.5	18.6	20.0	21.8
안동	18.2	18.7	19.6	20.7	21.6	22.6	23.1	24.3	25.5	26.9	28.4
광주	14.7	15.5	16.3	17.1	17.8	18.5	19.0	20.1	21.0	22.1	23.5
전주	15.6	16.3	16.9	17.8	18.4	19.2	19.8	20.7	21.6	22.7	24.1
제주	11.9	12.5	13.2	14.0	14.5	15.2	15.9	16.8	17.6	18.6	20.0
군종	0.5	0.5	1.0	1.2	1.1	1.0	0.9	0.9	1.0	1.1	1.3
합계	13.7	14.3	15.1	15.9	16.4	17.0	17.4	18.4	19.3	20.5	22.0

- 연령 미상 제외

## (2) 교구별 신자 규모

- ▶ 교구별 신자 구성 비율은 서울, 수원, 인천, 대구 교구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수도권 교구 신자가 전체의 55.8%임
- ▶ 수도권 교구에서 신자 전입과 전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20년 교구별 신자 비율은 서울대교구 신자 수가 한국 천주교회 전체 신자의 25.9%를 차지하고, 수원 15.7%, 인천 8.8%, 대구 8.6%, 부산 7.8%, 광주 6.2%, 대전 5.7%, 의정부 5.4% 등으로 매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교구(서울, 인천, 의정부, 수원)에 소속되어 있는 신자는 총 3,306,384명으로 전체 신자의 55.8%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0.2%p로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표 9> 전년 대비 교구별 신자 수

구분	신자 수(명)		교구별 신자 비율(%)
	2019	2020	
서울	1,528,876	1,534,019	25.9
춘천	91,281	91,713	1.5
대전	335,152	335,972	5.7
인천	521,690	522,320	8.8
수원	928,650	931,995	15.7
원주	79,402	79,668	1.3
의정부	315,620	318,050	5.4
대구	511,757	511,901	8.6
부산	460,003	459,640	7.8
청주	171,875	172,238	2.9

마산	182,194	181,943	3.1
안동	52,326	52,318	0.9
광주	365,649	365,528	6.2
전주	201,690	201,734	3.4
제주	81,411	82,083	1.4
군종	87,093	82,178	1.4
합계	5,914,669	5,923,300	100.0

- 2020년 한국 교회 전체 신자의 0.9%가 타교구로 전입·전출하였다(전입 52,783명, 전출 50,358명).
- 타교구에서 가장 많은 신자가 전입해 온 교구는 서울대교구로 전체 전입 신자의 29.3%이다. 다음으로는 수원교구 21.2%, 의정부교구 10.8%, 인천교구 9.1%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교구로 전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타교구로의 전출이 가장 많은 교구 역시 서울대교구가 26.3%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수원교구 13.0%, 인천교구 8.6%, 의정부교구 6.3% 순으로 나타나 타교구로의 전출 역시 수도권 교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종교구에서 타교구로의 전출 비율이 17.5%로 나타났는데 군종교구는 2016년부터 양업 시스템에 가상 본당을 만들어 사병 영세자들의 교적을 생성, 관리하고 전역 후 각자의 주소지 본당으로 전송하고 있다.
- 교구 신자 수 대비 타교구에서 전입한 신자의 비율은 의정부교구가 1.8%로 가장 높으며 춘천교구 1.4%, 수원교구 1.2%, 원주교구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타교구로 전출한 신자의 비율은 의정부교구 1.0%, 서울대교구와 춘천교구 각 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교구별 전입과 전출

구분	타교구에서의 전입			타교구로의 전출		
	전입 신자 수(명)	교구별 전입 비율(%)	교구 신자 대비 전입률(%)	전출 신자 수(명)	교구별 전출 비율(%)	교구 신자 대비 전출률(%)
서울	15,475	29.3	1.0	13,250	26.3	0.9
춘천	1,259	2.4	1.4	810	1.6	0.9
대전	3,058	5.8	0.9	2,598	5.2	0.8
인천	4,819	9.1	0.9	4,345	8.6	0.8
수원	11,169	21.2	1.2	6,540	13.0	0.7
원주	900	1.7	1.1	657	1.3	0.8
의정부	5,677	10.8	1.8	3,178	6.3	1.0
대구	2,002	3.8	0.4	2,273	4.5	0.4
부산	1,867	3.5	0.4	2,407	4.8	0.5
청주	1,322	2.5	0.8	939	1.9	0.5
마산	1,070	2.0	0.6	1,229	2.4	0.7

안동	427	0.8	0.8	426	0.8	0.8
광주	1,657	3.1	0.5	1,446	2.9	0.4
전주	915	1.7	0.5	1,028	2.0	0.5
제주	807	1.5	1.0	432	0.9	0.5
군종	359	0.7	0.4	8,800	17.5	10.7
합계	52,783	100	0.9	50,358	100	0.9

## II. 본당과 공소 현황

- ▶ 전국의 본당 수는 1,767개로 전년 대비 11개 증가
- ▶ 공소 수는 704개로 전년 대비 5개 감소
- ▶ 교구별 본당 평균 신자 수는 서울, 수원, 인천, 의정부 순으로 많이 나타남

- 전국의 본당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1,767개로 2019년 보다 11개가 증가하였다. 교구별로는 수원, 의정부 교구에서 각 3개, 춘천, 대전, 인천, 광주, 군중 교구에서 각 1개 본당이 신설되었다.
- 공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현재 704개로 2019년 보다 5개가 감소하였다. 춘천 3개, 대구 2개, 군중 2개, 의정부 1개, 전주 1개가 감소한 반면 대전 2개, 수원 1개, 광주 1개의 공소가 증가하였다.

<표 11> 2016-2020년 교구별 본당/공소 수 추이

구분	본당 수(개)						공소 수(개)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 수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 수
서울	229	232	232	232	232	-	-	-	-	-	-	-
춘천	61	61	62	62	63	1	41	41	39	39	36	-3
대전	138	142	142	142	143	1	53	54	54	66	68	2
인천	122	124	127	128	129	1	36	35	35	33	33	-
수원	211	213	215	218	221	3	18	17	17	16	17	1
원주	50	52	53	53	53	-	40	38	37	37	37	-
의정부	77	78	81	81	84	3	5	5	5	4	3	-1
대구	162	162	162	164	164	-	79	79	79	79	77	-2
부산	124	124	125	126	126	-	14	14	14	14	14	-
청주	77	77	78	79	79	-	57	51	51	49	49	-
마산	73	72	72	73	73	-	51	51	52	52	52	-
안동	40	40	40	40	40	-	64	64	63	63	63	-
광주	137	137	138	139	140	1	77	76	76	72	73	1
전주	95	96	96	96	96	-	75	74	75	60	59	-1
제주	27	27	28	28	28	-	8	8	9	9	9	-
군중	96	97	96	95	96	1	122	130	123	116	114	-2
합계	1,719	1,734	1,747	1,756	1,767	11	740	737	729	709	704	-5
증감 수	13	15	13	9	11		-21	-3	-8	-20	-5	

- 2010년과 비교하여 2020년 본당 수 증가율은 의정부교구 21.7%, 대전교구 21.2%, 원주교구 17.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 신자 수 대비 신자 증가율과 함께 보면, 의정부교구에서는 신자 증가율이 25.5%, 대전교구에서는

23.8%로 다른 교구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정부 교구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해 관할 지역 내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의정부교구 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인이 의정부교구 본당 신설 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12> 2010년 대비 2020년 교구별 인구, 신자 수, 본당 수 증감률

구분	본당 수 증감률(%)	인구 증감률(%)	신자 증감률(%)
서울	3.6	-5.9	8.2
춘천	8.6	-1.3	13.9
대전	21.2	12.2	23.8
인천	13.2	-0.2	17.1
수원	13.3	14.4	21.4
원주	17.8	8.9	13.1
의정부	21.7	20.2	25.5
대구	5.1	-1.7	11.7
부산	12.5	-0.6	9.6
청주	8.2	7.0	13.7
마산	-1.4	0.3	11.2
안동	5.3	-7.2	10.2
광주	13.8	-0.7	9.3
전주	7.9	-3.5	9.3
제주	12.0	18.1	19.9
군종	0.0	-	2.8
합계	9.8	3.0	13.8

- 교구별 본당 평균 신자 수는 서울대교구가 6,6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수원(4,217명), 인천(4,049명), 의정부(3,786명), 부산(3,648명) 교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4개의 교구에서 본당 평균 신자 수가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다.
- 본당 평균 신자 수가 가장 적은 교구는 안동교구로 1,308명이며, 본당 평균 신자 수가 가장 많은 서울대교구 6,612명의 19.8% 수준으로 5,304명의 차이가 나타났다.
- 2010년 본당 평균 신자 수와 비교하면 마산교구의 본당 평균 신자 수 증가율이 1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원 7.2%, 제주 7.0%, 대구 6.3%의 증가율을 보였다.  
원주(-4.0%)와 광주(-3.9%), 부산(-2.6%) 교구에서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본당 평균 신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교구별 본당 평균 신자 수



<표 13> 2010-2020년 교구별 본당 평균 신자 수(교구별 신자 수/본당 수)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6,329	6,349	6,346	6,432	6,517	6,576	6,643	6,586	6,594	6,590	6,612
춘천	1,388	1,414	1,449	1,443	1,396	1,420	1,445	1,466	1,458	1,472	1,456
대전	2,300	2,196	2,259	2,313	2,332	2,276	2,305	2,289	2,326	2,360	2,349
인천	3,914	3,923	3,945	3,990	3,993	4,069	4,132	4,120	4,072	4,076	4,049
수원	3,935	3,975	4,037	4,088	4,158	4,208	4,195	4,229	4,261	4,260	4,217
원주	1,565	1,562	1,551	1,565	1,542	1,570	1,528	1,489	1,480	1,498	1,503
의정부	3,674	3,645	3,700	3,873	3,810	3,811	3,864	3,898	3,822	3,897	3,786
대구	2,937	2,942	2,966	3,001	3,052	3,075	3,075	3,108	3,135	3,120	3,121
부산	3,745	3,546	3,568	3,552	3,597	3,609	3,641	3,668	3,661	3,651	3,648
청주	2,075	2,012	2,045	2,075	2,120	2,154	2,159	2,189	2,186	2,176	2,180
마산	2,211	2,239	2,261	2,290	2,369	2,401	2,428	2,492	2,513	2,496	2,492
안동	1,249	1,259	1,257	1,243	1,302	1,287	1,271	1,284	1,298	1,308	1,308
광주	2,718	2,665	2,614	2,640	2,685	2,598	2,627	2,649	2,635	2,631	2,611
전주	2,075	2,049	2,048	2,048	2,079	2,054	2,076	2,069	2,087	2,101	2,101
제주	2,739	2,778	2,613	2,661	2,730	2,799	2,868	2,923	2,868	2,908	2,932
군중	832	587	534	489	555	672	758	825	851	917	856
합계	3,235	3,204	3,222	3,263	3,306	3,315	3,340	3,353	3,358	3,368	3,352

- 군중교구의 2010년 신자 수는 교적 신자 수가 아닌 사목 신자 수를 집계하였다.

### Ⅲ. 성직자와 신학생 현황

#### 1) 성직자 수와 신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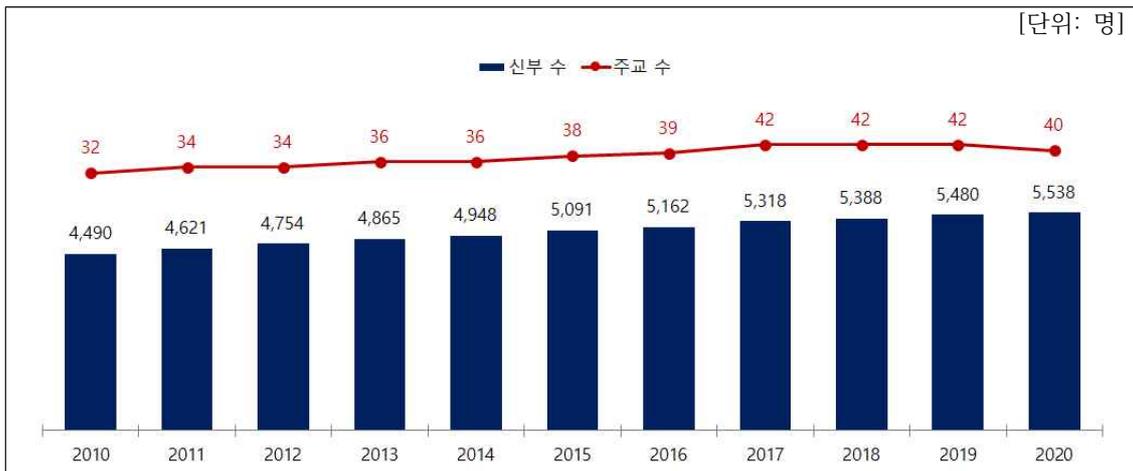
- ▶ 성직자 수는 총 5,578명(주교 40명(추기경 2명 포함), 신부 5,538명)으로 전년 대비 56명 증가
- ▶ 신학생 수는 교구 신학생 928명, 수도회 신학생 253명이며 교구 신학생 수는 2010년보다 32.5% 감소

□ 2020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의 성직자(부제 제외)는 추기경 2명을 포함하여 주교 40명, 신부 5,538명으로 총 5,578명이다. 주교의 수는 2019년보다 2명 감소, 신부는 58명이 증가하였다.

<표 14> 2010-2020년 성직자 수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성직자 수(명)	4,522	4,655	4,788	4,901	4,984	5,129
주교	32	34	34	36	36	38
신부	4,490	4,621	4,754	4,865	4,948	5,091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성직자 수(명)	5,201	5,360	5,430	5,522	5,578	
주교	39	42	42	42	40	
신부	5,162	5,318	5,388	5,480	5,538	

<그림 5> 2010-2020년 성직자 수 추이



- 5,538명의 신부 중 교구 신부는 4,582명이며, 축성생활회 신부는 809명, 사도생활단 신부는 147명으로 나타났다. 교구 신부는 전년보다 45명이 늘어 1.0%의 증가율을 보였고 축성생활회 신부는 1.5%(12명) 증가하였으며, 사도생활단 신부는 1명 증가하였다.
- 2020년에 수품된 교구 신부는 97명으로, 이는 전체 교구 신부 4,582명의 2.1%에 해당한다. 교구 새 수품 신부 수는 10년 전부터 매년 증가와 감소를 번갈아 보이고 있으며 2020년은 2019년보다 22.4%가 감소(-28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2010-2020년 교구와 수도회 신부 수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구	신부(명)	3,699	3,818	3,919	3,995	4,087	4,190
	증감률(%)	2.5	3.2	2.6	1.9	2.3	2.5
	새 수품 신부(명)	107	131	131	111	107	121
	증감률(%)	-28.2	22.4	0.0	-15.3	-3.6	13.1
수도회	축성생활회 신부(명)	632	647	676	697	708	731
	증감률(%)	2.4	2.4	4.5	3.1	1.6	3.2
	사도생활단 신부(명)	159	156	159	173	153	170
	증감률(%)	7.4	-1.9	1.9	8.8	-11.6	11.1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교구	신부(명)	4,264	4,386	4,456	4,537	4,582	
	증감률(%)	1.8	2.9	1.6	1.8	1.0	
	새 수품 신부(명)	109	146	100	125	97	
	증감률(%)	-9.9	33.9	-31.5	25.0	-22.4	
수도회	축성생활회 신부(명)	748	781	786	797	809	
	증감률(%)	2.3	4.4	0.6	1.4	1.5	
	사도생활단 신부(명)	150	151	146	146	147	
	증감률(%)	-11.8	0.7	-3.3	0.0	0.7	

<그림 6> 2010-2020년 신부 수 추이



- 2020년 신학생 수는 교구 928명, 수도회 253명이다. 교구의 신학생 수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010년 1,374명보다 3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회 신학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감소하여 199명인 최저 인원을 나타낸 이후 2015년에 전년 대비 28.0% 증가하였고 2020년 현재까지 250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수도회 신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15.7%가 감소하였다.
- 신학생 입학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해가 있긴 하지만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0년 13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보다 25.7%가 감소한 수이다. 교구 입학 신학생은 2020년 116명으로 10년 전보다 18.9% 감소, 수도회 입학 신학생은 23명으로 10년 전보다 47.7%가 감소하였다.
- 2016년과 2017년에 입학한 신학생 수는 각각 132명, 136명으로 지난 10년 가운데 입학생이 적은 2개년이었고, 이때 교구 신학생 입학 수 역시 적었던 해로 나타났다. 2020년은 세 번째로 입학 신학생 수와 교구 신학생의 수가 적은 해이다.
- 입학하는 신학생 가운데 교구 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9년으로 84.8%였으며 가장 낮았던 해는 2010년 76.5%였다. 2020년은 지난 10년 동안 교구와 수도회 신학생 비율의 차가 세 번째로 크게 나타난 해이다.

<표 16> 2010-2020년 신학생 수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학생(명)	1,674	1,587	1,540	1,463	1,435	1,470	1,421	1,319	1,273	1,209	1,181
교구(명)	1,374	1,317	1,292	1,264	1,224	1,200	1,154	1,068	1,018	966	928
증감률(%)	*	-4.1	-1.9	-2.2	-3.2	-2.0	-3.8	-7.5	-4.7	-5.1	-3.9
수도회(명)	300	270	248	199	211	270	267	251	255	243	253
증감률(%)	*	-10.0	-8.1	-19.8	6.0	28.0	-1.1	-6.0	1.6	-4.7	4.1
입학 신학생(명)	187	223	203	170	160	158	132	136	164	145	139
교구(명)	143	179	166	143	127	124	110	108	130	123	116
비율(%)	76.5	80.3	81.8	84.1	79.4	78.5	83.3	79.4	79.3	84.8	83.5
수도회(명)	44	44	37	27	33	34	22	28	34	22	23
비율(%)	23.5	19.7	18.2	15.9	20.6	21.5	16.7	20.6	20.7	15.2	16.5

\* 2009년까지는 신학생 수를 교구와 수도회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신학생의 합으로 표시하였기에 2009년 대비 2010년 신학생 증감률은 계산하지 않았다.

<그림 7> 2010-2020년 신학생 수 추이



- 일반 학생을 포함한 신학교의 입학자 수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0년 200명대의 입학자 수가 2013년 100명대 후반으로 떨어진 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입학 신학생 수가 가장 적었던 2016년(132명, 표 16 참고)에는 입학자 수가 155명으로 지난 10년 가운데 가장 적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은 162명으로 10년 전보다 20.6%가 감소하였다.
- 입학 충원율은 매년 50~60% 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몇 개년을 제외하고 충원율이 50%대였으나 2018년부터는 62~63%를 보이고 있다. 2019년부터 입학 정원이 250명대로 줄었는데 이때부터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입학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한편 신학교별 입학 충원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 112.0%, 대구 110.0%, 인천 81.3%, 광주 60.0%, 수원 36.7%, 대전 35.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2010-2020년 신학교 입학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입학 수(명)	204	233	234	179	187	175	155	160	171	160	162
입학 정원(명)	355	345	335	325	305	295	285	285	273	257	256
입학률(%)	57.5	67.5	67.5	55.1	61.3	59.3	54.4	56.1	62.6	62.3	63.3

## 2) 교구 소속 신부

- ▶ 교구 소속 새 수품 신부는 97명으로 전년 대비 28명 감소
- ▶ 본당 사목을 소임으로 하는 신부는 전체 신부의 48.9%(특수사목 22.8%)로 그 비율은 2010년부터 매년 감소
- ▶ 본당 사목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2,608명임
- ▶ 65세 이상의 신부가 1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30-34세는 9.1%)  
2012년 30-34세(15.3%), 65세 이상(9.4%)의 비율이 역전됨

- 2020년 교구 소속 새 수품 신부 수는 총 97명으로 2019년보다 28명이 감소하였다.
- 대구대교구는 전년보다 26명이 감소하여 2020년 전체 새 수품 신부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2019년에는 31명으로 2018년 7명보다 24명이 늘어났으나 2020년에 다시 5명으로 2018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 부산교구에서 2020년 새 수품자가 없었는데 이는 2019년까지는 서품식이 12월 말에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이듬해 1월 초 거행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20년 전체 신부 대비 높은 비율의 새 수품자가 탄생한 교구는 제주 5.6%, 수원 3.7%, 의정부 3.6%, 서울 2.8% 순이다.

<표 18> 2010-2020년 교구별 새 수품 신부 수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 대비 증감 수
서울	-	32	37	21	36	25	20	27	32	26	26	0
춘천	3	3	2	1	3	3	-	3	1	2	1	-1
대전	11	19	18	10	12	10	5	22	-	7	9	2
인천	22	-	11	11	7	7	12	18	11	9	8	-1
수원	12	17	14	20	13	19	17	22	13	25	20	-5
원주	3	1	2	3	3	2	6	2	4	3	1	-2
의정부	-	6	4	5	6	7	4	8	7	4	8	4
대구	17	16	12	14	-	17	13	15	7	31	5	-26
부산	12	9	14	5	9	3	6	7	7	4	0	-4
청주	8	5	2	2	3	6	3	7	4	3	2	-1
마산	2	2	4	4	-	5	7	3	3	-	4	4
안동	1	5	-	1	-	3	4	1	-	1	1	0
광주	6	9	5	8	10	6	6	7	7	5	7	2
전주	7	6	4	5	4	5	4	4	3	3	2	-1
제주	3	1	2	1	1	3	2	-	1	2	3	1
합계	107	131	131	111	107	121	109	146	100	125	97	-28

- 2020년 현재 교구 신부 가운데 본당 사목을 소임으로 하는 신부 수는 2,240명으로 전체 신부의 48.9%에 해당한다. 이어서 특수 사목 22.8%, 국내외 연학 5.1%, 교포 사목 3.7%, 해외 선교 2.6%, 군종 2.2%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원로 사목자는 9.7%로 나타났다.
- 본당 사목의 비율은 201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특수 사목은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다. 2020년 교포 사목의 비율은 2010년보다 0.8%p 감소한 반면 해외 선교의 비율은 0.8%p 증가하였다.
- 휴직 상태의 신부가 2017년부터 약 1%를 차지하였으며 2019년에는 1.6%까지 늘었으나 2020년에는 전년보다 0.7%p 감소하여 0.9%를 나타내고 있다. 원로 사목자의 비율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년 전보다 4.2%p가 늘어 교구 신부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2010-2020년 교구 신부 소임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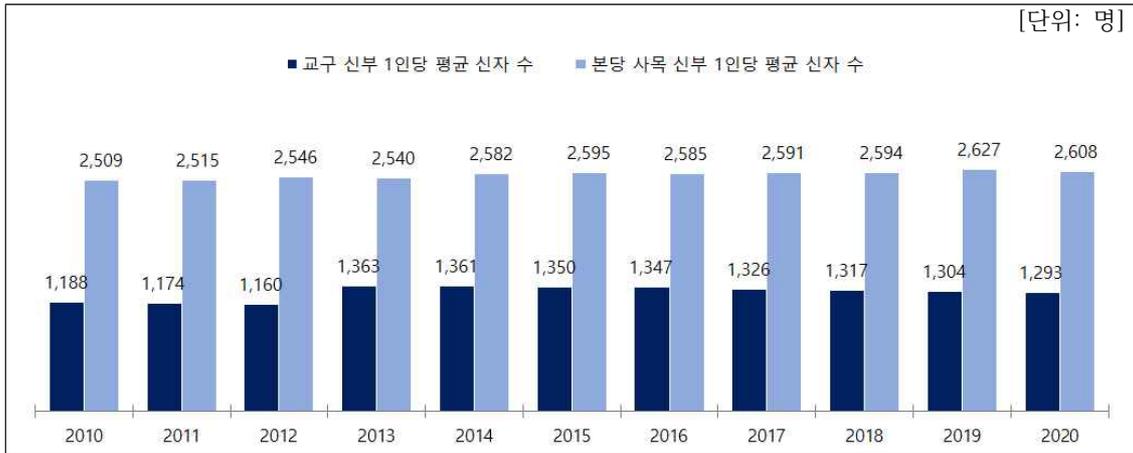
구분	본당 사목	특수 사목	군종	국내외 연학	교포 사목	해외 선교	안식년	휴양	대기	휴직	원로 사목	
2010	인원수(명)	2,044	801	93	191	167	65	63	45	3	21	205
	비율(%)	55.3	21.7	2.5	5.2	4.5	1.8	1.7	1.2	0.1	0.6	5.5
2011	인원수(명)	2,070	844	95	194	165	79	65	44	11	23	227
	비율(%)	54.2	22.1	2.5	5.1	4.3	2.1	1.7	1.2	0.3	0.6	5.9
2012	인원수(명)	2,087	892	94	192	171	94	55	41	15	28	249
	비율(%)	53.3	22.8	2.4	4.9	4.4	2.4	1.4	1.0	0.4	0.7	6.4
2013	인원수(명)	2,125	910	92	187	173	82	67	51	17	22	269
	비율(%)	53.2	22.8	2.3	4.7	4.3	2.1	1.7	1.3	0.4	0.6	6.7
2014	인원수(명)	2,134	999	98	144	168	90	69	45	21	27	292
	비율(%)	52.2	24.4	2.4	3.5	4.1	2.2	1.7	1.1	0.5	0.7	7.1
2015	인원수(명)	2,156	991	98	204	171	99	63	48	36	26	298
	비율(%)	51.5	23.7	2.3	4.9	4.1	2.4	1.5	1.1	0.9	0.6	7.1
2016	인원수(명)	2,194	1,020	99	171	169	107	69	50	39	25	321
	비율(%)	51.5	23.9	2.3	4.0	4.0	2.5	1.6	1.2	0.9	0.6	7.5
2017	인원수(명)	2,214	1,058	100	171	165	111	68	51	39	38	371
	비율(%)	50.5	24.1	2.3	3.9	3.8	2.5	1.6	1.2	0.9	0.9	8.5
2018	인원수(명)	2,231	1,043	99	199	174	113	63	64	43	36	391
	비율(%)	50.1	23.4	2.2	4.5	3.9	2.5	1.4	1.4	1.0	0.8	8.8
2019	인원수(명)	2,219	1,060	102	207	165	123	93	55	12	73	428
	비율(%)	48.9	23.4	2.2	4.6	3.6	2.7	2.0	1.2	0.3	1.6	9.4
2020	인원수(명)	2,240	1,046	100	233	168	121	103	67	16	43	445
	비율(%)	48.9	22.8	2.2	5.1	3.7	2.6	2.2	1.5	0.3	0.9	9.7

- 교구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1,293명(수도회 사제를 포함하면 1,070명)으로 2019년 1,304명보다 11명이 감소하였다. 2013년 1,300명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7년 만에 1,200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구 신부 중 본당 사목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2,608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교구(3,551명), 인천교구(3,392명), 수원교구(3,270명), 제주교구(3,040명) 등의 순으로 1인당 평균 신자 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당 사목 신부의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매년 증감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으나 지난 10년 동안을 보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8> 2010-2020년 교구 신부(본당 사목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 추이



<표 20> 2010-2020년 교구 신부(본당 사목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1,384 (3,635)	1,393 (3,670)	1,348 (3,755)	1,910 (3,610)	1,859 (3,553)	1,828 (3,594)	1,813 (3,588)	1,764 (3,578)	1,717 (3,533)	1,703 (3,572)	1,680 (3,551)
춘천	719 (1,258)	689 (1,281)	688 (1,271)	813 (1,268)	803 (1,374)	795 (1,375)	801 (1,377)	799 (1,466)	800 (1,506)	794 (1,449)	812 (1,456)
대전	859 (1,762)	840 (1,690)	841 (1,739)	885 (1,748)	887 (1,773)	893 (1,823)	914 (1,849)	883 (1,816)	898 (1,845)	906 (1,894)	886 (1,887)
인천	1,426 (3,015)	1,427 (3,138)	1,369 (3,062)	1,637 (3,208)	1,646 (3,314)	1,655 (3,423)	1,631 (3,273)	1,572 (3,173)	1,548 (3,315)	1,534 (3,344)	1,514 (3,392)
수원	1,683 (3,266)	1,643 (3,266)	1,655 (3,350)	1,916 (3,290)	1,937 (3,379)	1,914 (3,427)	1,904 (3,418)	1,857 (3,425)	1,870 (3,418)	1,828 (3,328)	1,779 (3,270)
원주	697 (1,281)	704 (1,306)	708 (1,350)	707 (1,337)	698 (1,299)	698 (1,322)	670 (1,213)	667 (1,191)	654 (1,207)	646 (1,302)	642 (1,285)
의정부	1,327 (2,613)	1,360 (2,598)	1,371 (2,548)	1,483 (2,582)	1,500 (2,454)	1,490 (2,466)	1,495 (2,479)	1,469 (2,599)	1,453 (2,457)	1,475 (2,447)	1,446 (2,356)
대구	985 (2,213)	963 (2,246)	938 (2,278)	1,053 (2,230)	1,076 (2,391)	1,027 (2,342)	1,015 (2,339)	1,005 (2,299)	1,004 (2,395)	969 (2,369)	1,010 (2,337)
부산	1,202 (2,424)	1,176 (2,345)	1,163 (2,327)	1,294 (2,421)	1,309 (2,499)	1,301 (2,446)	1,309 (2,441)	1,307 (2,446)	1,300 (2,434)	1,289 (2,514)	1,280 (2,498)
청주	875 (1,515)	864 (1,576)	873 (1,570)	933 (1,561)	948 (1,678)	941 (1,723)	939 (1,768)	921 (1,702)	917 (1,740)	914 (1,828)	911 (1,813)
마산	986 (1,818)	969 (1,883)	961 (1,859)	1,100 (1,904)	1,095 (1,922)	1,110 (1,948)	1,108 (1,948)	1,101 (2,111)	1,117 (2,080)	1,125 (2,169)	1,096 (2,192)

안동	586 (1,157)	556 (1,087)	582 (1,137)	638 (1,154)	634 (1,237)	652 (1,224)	628 (1,130)	626 (1,141)	604 (1,104)	595 (1,189)	588 (1,189)
광주	1,115 (2,143)	1,114 (2,142)	1,119 (2,181)	1,383 (2,148)	1,358 (2,132)	1,353 (2,106)	1,348 (2,155)	1,349 (2,186)	1,332 (2,115)	1,315 (2,176)	1,283 (2,150)
전주	947 (1,759)	932 (1,743)	933 (1,745)	938 (1,764)	939 (1,758)	933 (1,758)	939 (1,793)	937 (1,789)	941 (1,838)	942 (1,850)	943 (1,851)
제주	1,522 (2,446)	1,477 (2,671)	1,501 (2,433)	1,671 (2,661)	1,675 (2,730)	1,608 (2,606)	1,580 (2,420)	1,644 (2,722)	1,639 (2,676)	1,596 (3,015)	1,520 (3,040)
군종	859 -	764 -	545 -	494 -	521 -	652 -	735 -	800 -	825 -	854 -	822 -
전체	1,188 (2,509)	1,174 (2,515)	1,160 (2,546)	1,363 (2,540)	1,361 (2,582)	1,350 (2,595)	1,347 (2,585)	1,326 (2,591)	1,317 (2,594)	1,304 (2,627)	1,293 (2,608)

- 교구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각 교구에서 군종교구에 파견된 신부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였다(전체 신자 수에 군종교구 신자 수 포함).
- 본당 사목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괄호 안에 표기하였고, 군종교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전체 신자 수에 군종교구 신자 수 제외).

□ 2020년 교구 신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의 신부가 1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14.0%가 되면서 교구 사제의 고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신부를 제외하면 2020년 40-44세 신부가 15.0%로 가장 많으며 45-49세 14.9%, 50-54세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2년(그 이전은 조사 연령 구간이 달라 비교가 어려움) 연령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30-34세가 15.3%, 65세 이상이 9.4%였던 반면, 2020년에는 30-34세가 9.1%, 65세 이상이 15.1%로 비율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30대는 32.3%였으나 2020년 현재 21.1%로 30대의 젊은 신부가 줄어들고 있다.

<표 21> 2012-2020년 교구 신부 연령별 비율 추이

구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12	2.0	15.3	17.0	16.9	14.7	11.4	8.0	5.1	9.4	3.6	3.3	1.4	1.1
2013	1.8	13.6	15.8	17.6	14.8	12.3	8.6	5.4	10.1	3.8	3.1	2.1	1.1
2014	1.4	11.7	16.4	17.1	14.8	12.6	8.9	6.1	10.9	4.2	3.0	2.3	1.4
2015	1.5	11.1	16.4	16.9	14.1	13.7	8.4	6.8	11.0	4.1	3.1	2.2	1.6
2016	1.7	9.5	16.3	16.0	15.2	13.1	9.3	7.1	11.6	4.2	3.1	2.5	1.8
2017	2.4	9.0	15.6	15.5	14.6	12.8	10.6	7.1	12.5	4.7	3.2	2.8	1.8
2018	2.3	9.3	14.8	14.9	15.1	12.6	10.8	7.5	12.7	4.6	3.2	2.7	2.2
2019	1.5	10.0	12.9	14.7	15.4	12.8	10.9	7.8	14.0	5.0	3.7	2.4	2.9
2020	1.5	9.1	12.0	15.0	14.9	12.8	11.5	8.0	15.1	5.9	3.7	2.6	2.9

#### IV. 수교회 및 수도자 현황

- ▶ 총 169개 수교회에서 11,778명(남자 1,626명, 여자 10,152명)의 수도자가 수도 생활을 하고 있음(수련자는 335명)
- ▶ 많은 수교회에서 외국인 유기 서원자 및 수련자의 비중이 높아짐

##### 1) 수교회 및 수도자 수

- 2020년 한국 교회의 수교회 현황은 총 169개 수교회에 수도자 11,778명이 수도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수도자는 지난해보다 32명이 증가한 1,626명, 여자 수도자는 7명이 감소한 10,152명으로 집계되었다.
- 2020년 수련자는 남자 67명, 여자는 268명이다. 남자 수련자 수는 지난해보다 30명이 감소하여 30.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자 수련자는 13명이 증가하여 5.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20년 남자 수련자 수의 전년 대비 감소율은 지난 10년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30.9%)을 보였으며 여자 수련자 수는 2010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 2010-2020년 수교회 및 수도자 수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수교회 수(개)	153	155	157	166	168	169	169	167	167	169	169	
수도자	남자(명)	1,558	1,521	1,569	1,564	1,574	1,585	1,564	1,593	1,592	1,594	1,626
	증감률(%)	0.2	-2.4	3.2	-0.3	0.6	0.7	-1.3	1.9	-0.1	0.1	2.0
	여자(명)	9,838	10,146	10,167	10,173	10,160	10,155	10,170	10,143	10,145	10,159	10,152
	증감률(%)	-2.3	3.1	0.2	0.1	-0.1	0.0	0.1	-0.3	0.0	0.1	-0.1
수련자	남자(명)	112	87	98	98	82	59	91	91	90	97	67
	증감률(%)	8.7	-22.3	12.6	0.0	-16.3	-28.0	54.2	0.0	-1.1	7.8	-30.9
	여자(명)	428	356	388	359	361	335	300	303	287	255	268
	증감률(%)	-10.1	-16.8	9.0	-7.5	0.6	-7.2	-10.4	1.0	-5.3	-11.1	5.1

##### (1) 남자 수교회

###### ▶ 교황청 설립 수교회

- 종신 서원자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반면 유기 서원자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에는 13명이 증가하였다.

□ 수련자는 201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3명이 감소하였다.

▶ **교구 설립 수도권회**

□ 종신 서원자는 지난 10년 동안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지난해보다 9명 증가한 304명이다.

□ 유기 서원자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2016년까지는 한국인 유기 서원자가 외국인보다 많았으나 2017년부터 외국인 수가 한국인 수를 역전하였다.

□ 수련자 수는 매년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인과 외국인 수련자의 비율은 유기 서원자와 마찬가지로 2016년까지는 한국인 수련자가 더 많았으나 2017년부터는 외국인 수련자가 더 많아졌다.

□ 이는 교구 설립 남자 수도권회에서 2017년부터 외국인 유기 서원자 및 수련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도생활단**

□ 종신 서원자는 2020년 154명으로 10년 전보다 8.9%가 감소하였다. 2010년 한국인과 외국인 종신 서원자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점차 한국인의 비율이 높아져 2020년에는 한국인 종신 서원자가 64.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 유기 서원자는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10년 전보다 47.8%가 감소하였다.

□ 수련자 수는 매년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나타나 2020년에는 14명으로 나타났다.

<표 23> 2010-2020년 남자 수도자 수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교 구 설 립	종신서원자(명)	896	903	910	933	948	958	970	988	989	985	985
	한국인	792	805	817	843	863	865	872	887	894	897	895
	외국인	104	98	93	90	85	93	98	101	95	88	90
	유기서원자(명)	122	128	120	103	104	96	83	83	72	74	87
	한국인	117	126	116	100	96	95	78	80	68	69	82
	외국인	5	2	4	3	8	1	5	3	4	5	5
	수련자(명)	51	51	52	47	36	29	31	32	34	39	26
	한국인	51	51	49	45	35	27	30	30	30	35	25
	외국인	0	0	3	2	1	2	1	2	4	4	1
교 구 설 립	종신서원자(명)	258	256	275	280	287	281	290	290	294	295	304
	한국인	242	254	251	254	264	259	265	262	263	265	259
	외국인	16	2	24	26	23	22	25	28	31	30	45
	유기서원자(명)	90	47	71	61	51	52	46	61	72	75	84
	한국인	54	47	43	40	37	32	24	30	29	26	28
	외국인	36	0	28	21	14	20	22	31	43	49	56

사 도 생 활 단	수련자(명)	41	18	22	35	34	16	43	44	37	44	27
	한국인	33	17	11	27	23	9	22	18	14	21	10
	외국인	8	1	11	8	11	7	21	26	23	23	17
	종신서원자	169	161	164	163	163	177	162	158	152	153	154
	한국인	84	79	80	85	91	91	95	97	93	98	100
	외국인	85	82	84	78	72	86	67	61	59	55	54
	유기서원자	23	26	29	24	21	21	13	13	13	12	12
	한국인	22	24	27	21	19	19	11	10	10	9	11
	외국인	1	2	2	3	2	2	2	3	3	3	1
	수련자(수)	20	18	24	16	12	14	17	15	19	14	14
	한국인	15	15	19	14	10	12	13	12	14	12	12
	외국인	5	3	5	2	2	2	4	3	5	2	2

## (2) 여자 수도회

### ▶ 교황청 설립 수도회

- 종신 서원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5,832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보다 15.2%가 증가한 수이며, 한국인 종신 서원자 수는 15.5% 증가한 반면 외국인 종신 서원자는 6.5%가 증가하였다.
- 유기 서원자는 2011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8.5% 감소한 28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보다 60.8% 감소한 수이다. 한국인 유기 서원자는 10년 전보다 66.5%가 감소한 반면 외국인 유기 서원자는 41.0%가 증가하였다.
- 수련자 역시 2012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수련자 수는 2010년보다 53.6% 감소한 110명이다. 2010년 수련자 중 외국인 수련자의 비율은 6.3%였으나 2020년 외국인 수련자 비율은 30.9%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보다 126.7% 증가한 수치이다.

### ▶ 교구 설립 수도회

- 종신 서원자는 2016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종신 서원자 수는 3,651명으로 2010년보다 4.9%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종신 서원자 수는 10년 전인 21명에서 88명으로 319.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 종신 서원자 3.0% 증가).
- 유기 서원자는 2010년부터 매년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외국인 유기 서원자 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한국인 유기 서원자의 비율은 86.5%였으나 매년 낮아져 2018년에는 70.4%까지 떨어졌다. 유기 서원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2019년에는 한국인 유기 서원자가 58.6%(외국인 41.4%)였으나 2020년에는 47.7%(외국인 52.3%)로 외국인 유기 서원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2010년보다 외국인 유기 서원자는 117.2%가 증가하였다.

- 수련자 역시 2016년까지는 한국인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2017년부터 외국인 수련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련자 수는 2010년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2020년은 27명으로 10년 전보다 3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수련자는 10년 전보다 69.7%가 감소한 반면 외국인 수련자는 112.5%가 증가하였다.
- 교구 설립 여자 수도회 또한 점차 외국인 유기 서원자 및 수련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재속회

- 종신 서원자는 2020년 48명으로 2010년보다 71.4%가 증가하였다. 유기 서원자는 7명으로 지난 10년 이래 가장 적은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련자는 5명으로 전년보다 4명 증가하였다.

▶ 사도생활단

- 종신 서원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42명으로 10년 전보다 68.0%가 증가하였다.
- 유기 서원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 외국인 유기 서원자 수는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나 한국인 유기 서원자의 감소로 전체 유기 서원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2015년부터 전체 유기 서원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 시기에 외국인 유기 서원자 수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 수련자 수는 2010년 5명이었으나 2020년은 16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수련자는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외국인 수련자가 10년 전 2명에서 현재 13명으로 증가하였다.
- 여자 사도생활단에서도 외국인 유기 서원자 및 수련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표 24> 2010-2020년 여자 수도자 수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교 황 청	종신서원자(명)	5,061	5,380	5,417	5,626	5,683	5,674	5,746	5,795	5,805	5,826	5,832
	한국인	4,923	5,257	5,304	5,495	5,546	5,540	5,608	5,660	5,659	5,679	5,685
	외국인	138	123	113	131	137	134	138	135	146	147	147
설 립	유기서원자(명)	737	746	717	536	488	458	400	356	349	316	289
	한국인	698	709	676	488	441	416	350	300	295	267	234
	외국인	39	37	41	48	47	42	50	56	54	49	55

	수련자(명)	237	205	229	214	227	211	176	161	141	113	110
	한국인	222	184	194	189	204	180	150	142	115	83	76
	외국인	15	21	35	25	23	31	26	19	26	30	34
교구 설립	종신서원자(명)	3,480	3,519	3,566	3,599	3,586	3,663	3,680	3,647	3,661	3,654	3,651
	한국인	3,459	3,499	3,539	3,563	3,544	3,612	3,617	3,594	3,587	3,575	3,563
	외국인	21	20	27	36	42	51	63	53	74	79	88
	유기서원자(명)	474	413	365	310	305	258	243	241	226	251	266
	한국인	410	352	313	278	253	207	188	177	159	147	127
	외국인	64	61	52	32	52	51	55	64	67	104	139
	수련자(명)	185	138	137	133	124	116	116	126	128	128	137
	한국인	133	114	115	100	79	82	81	55	40	25	27
	외국인	52	24	22	33	45	34	35	71	88	103	110
재속회	종신서원자(명)	28	29	45	45	42	43	41	40	41	47	48
	유기서원자(명)	9	10	10	9	9	10	8	8	7	8	7
	수련자(명)	1	5	14	7	6	2	0	2	0	1	5
사도 생활단	종신서원자(명)	25	37	35	37	38	36	38	39	40	43	42
	한국인	23	34	31	33	34	32	32	33	34	36	36
	외국인	2	3	4	4	4	4	6	6	6	7	6
	유기서원자(명)	24	12	12	11	9	13	14	17	16	14	17
	한국인	16	6	6	5	4	4	3	3	3	2	2
	외국인	8	6	6	6	5	9	11	14	13	12	15
	수련자(명)	5	8	8	5	4	6	8	14	18	13	16
	한국인	3	3	4	2	1	2	5	5	5	3	3
	외국인	2	5	4	3	3	4	3	9	13	10	13

## 2) 사도직 활동 현황

□ 2020년 남자 수도자들의 사도직 활동 현황은, 총 654명의 수도자 가운데 사회복지기관 23.9%(156명), 교회기관 14.4%(94명), 전교활동 12.2%(80명), 교육기관 10.1%(66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교활동,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특수 사도직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모두 2013년보다 낮아졌다. 특히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분야에서 그 비율의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출판홍보기관, 교회기관, 기타 분야에서는 2013년보다 활동 비율이 높아졌다. 2016년부터 기타 사도직 분야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는데 남자 수도회가 현황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도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여자 수도자들의 사도직 활동 현황은, 총 6,381명의 수도자 가운데 전교활동

27.6%(1,762명), 사회복지기관 19.8%(1,266명), 교육기관 9.4%(602명), 의료기관 9.0%(572명) 등의 순이다. 분야별 비중은 2019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나 2013년과 비교하면 역시 전교활동,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전교활동이 여자 수도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년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또한 남자 수도자와 마찬가지로 기타 분야에서의 활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남녀 수도자의 기타 사도직 분야는 청소년수련원, 대학기숙사, 상담(영성·심리), 수녀원 상주 신부, 수도회 내부 사도직, 통번역 등 현황 항목에 표기되지 않은 모든 사도직을 포함한다. 이처럼 기타 분야에서의 활동 비율이 높아진 것은 과거 활동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다양한 분야로 사도직 활동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5> 수도자 사도직 활동 현황 비율 추이

구분	전교활동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특수 사도직	출판홍보기관	교회기관	기타	
남자 수도자 (%)	2013	15.0	18.7	6.9	28.9	10.6	4.7	6.7	8.6
	2014	16.0	11.9	5.7	23.1	7.1	7.9	14.1	14.1
	2015	12.5	10.7	5.2	28.3	4.7	7.0	13.1	18.3
	2016	10.7	11.0	4.8	24.2	6.0	6.6	11.1	25.5
	2017	10.9	10.9	4.4	25.2	6.5	5.0	16.1	21.1
	2018	12.2	11.4	4.7	24.4	5.1	7.6	14.8	19.8
	2019	13.1	10.1	4.7	22.0	7.1	6.5	12.2	24.5
	2020	12.2	10.1	4.3	23.9	6.3	5.8	14.4	23.1
여자 수도자 (%)	2013	34.7	13.0	9.8	24.7	4.6	3.0	6.6	3.6
	2014	32.4	10.7	9.4	24.1	3.5	3.0	7.5	9.5
	2015	31.1	9.4	9.2	24.0	3.3	2.6	7.6	12.7
	2016	30.8	9.8	9.0	21.9	3.8	2.7	6.7	15.3
	2017	30.5	9.8	8.9	22.5	3.6	3.3	7.2	14.2
	2018	28.9	9.7	8.7	20.7	4.2	3.3	7.4	17.1
	2019	29.2	9.6	8.8	20.9	5.5	2.9	7.0	16.1
	2020	27.6	9.4	9.0	19.8	5.3	2.9	7.7	18.3

## V. 성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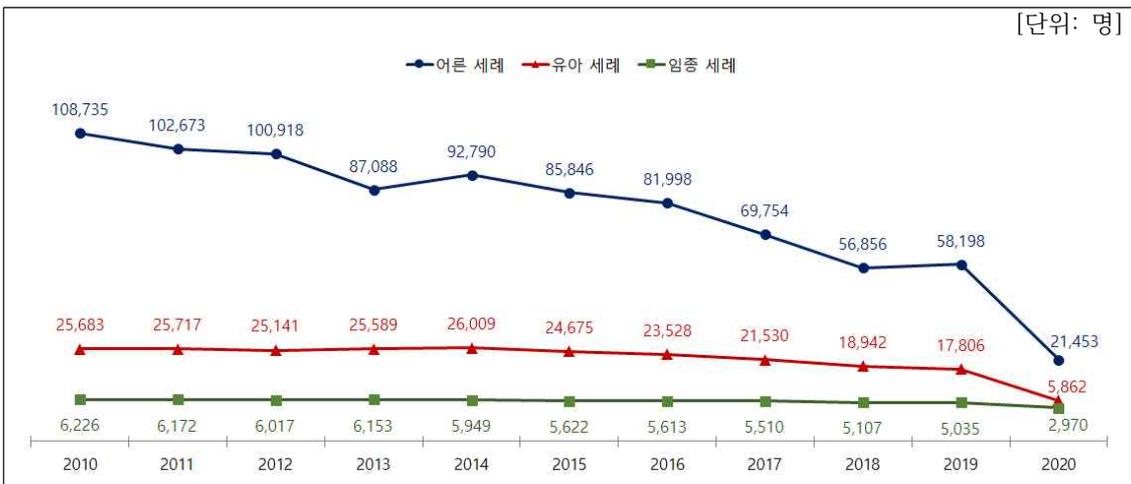
### 1) 세례성사

#### (1) 총 영세자 수

- ▶ 2020년 영세자 수는 30,285명으로 전년 대비 62.6% 감소
- ▶ 유아 세례 비율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감소(전년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큼)

- 2020년 한국 교회의 영세자 수는 30,285명으로 전년 대비 62.6%가 감소하였다. 세례의 유형별로는 유아 세례 19.4%(5,862명), 어른 세례 70.8%(21,453명), 임종 세례 9.8%(2,970명)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유아 세례의 비율은 매년 20%가 넘게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20% 아래로 감소하였고 어른 세례 역시 2019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른 세례는 201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반대로 임종 세례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임종 세례의 비율이 전년보다 큰 차이(3.6%p)로 증가하였다.

<그림 9> 2010-2020년 영세자 수 추이



<표 26> 2010-2020년 영세자 수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유아 세례(명)	25,683	25,717	25,141	25,589	26,009	24,675
비율(%)	18.3	19.1	19.0	21.5	20.8	21.2
어른 세례(명)	108,735	102,673	100,918	87,088	92,790	85,846
비율(%)	77.3	76.3	76.4	73.3	74.4	73.9

임종 세례(명)	6,226	6,172	6,017	6,153	5,949	5,622
비율(%)	4.4	4.6	4.6	5.2	4.8	4.8
전체(명)	140,644	134,562	132,076	118,830	124,748	116,143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유아 세례(명)	23,528	21,530	18,942	17,806	5,862	
비율(%)	21.2	22.2	23.4	22.0	19.4	
어른 세례(명)	81,998	69,754	56,856	58,198	21,453	
비율(%)	73.8	72.1	70.3	71.8	70.8	
임종 세례(명)	5,613	5,510	5,107	5,035	2,970	
비율(%)	5.1	5.7	6.3	6.2	9.8	
전체(명)	111,139	96,794	80,905	81,039	30,285	

- 유형별로는 2019년 대비 유아 세례가 67.1%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어른 세례는 63.1% 감소, 임종 세례는 4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9년 대비 영세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대면 성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다. 미사까지 중단된 초유의 상황에서 모든 대면 모임, 소모임 자체가 금지되어 예비신자 교리마저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한 해였다. 온라인 교리 등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였거나 상황이 일시적으로 좋아졌을 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세례성사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결국 영세자 수는 전년 대비 62.6%가 감소하였다.
- 매년 전년 대비 영세자 수는 감소(2014년 소폭 상승한 요인은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영향)하여 2017년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8년 -16.4%로 더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새 신자 탄생에 큰 차질을 빚었다. 2021년의 세례성사가 더 많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7> 2010-2020년 전년 대비 영세자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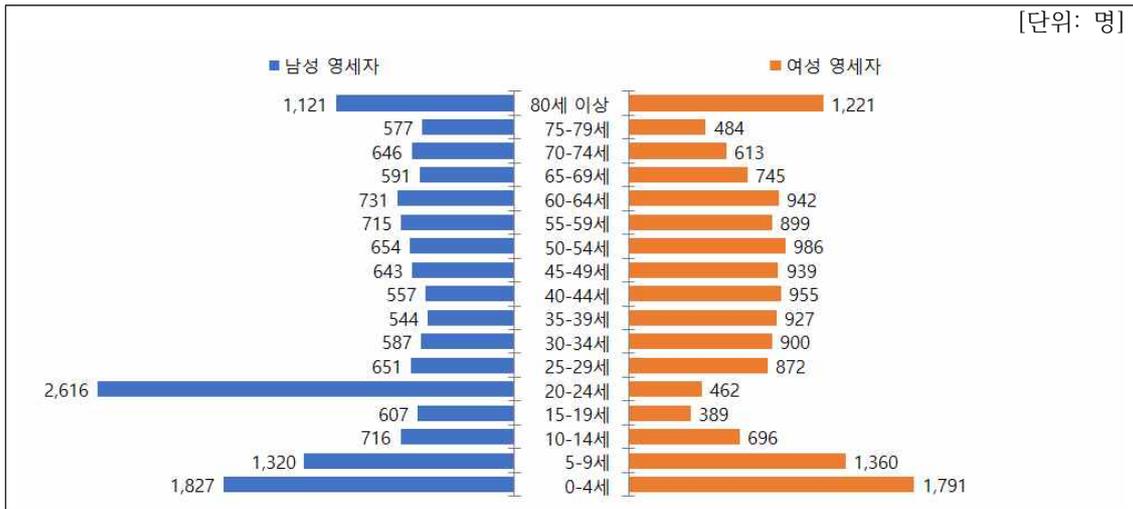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유아 세례(%)	-1.1	0.1	-2.2	1.8	1.6	-5.1	-4.6	-8.5	-12.0	-6.0	-67.1
어른 세례(%)	-12.9	-5.6	-1.7	-13.7	6.5	-7.5	-4.5	-14.9	-18.5	2.4	-63.1
임종 세례(%)	-2.7	-0.9	-2.5	2.3	-3.3	-5.5	-0.2	-1.8	-7.3	-1.4	-41.0
전체(%)	-10.4	-4.3	-1.8	-10.0	5.0	-6.9	-4.3	-12.9	-16.4	0.2	-62.6

## (2) 연령별 영세자 수

- ▶ 2020년 영세자는 남성 49.9% 대 여성 50.1%로 나타남
- ▶ 매년 군종교구의 영향으로 20-24세의 영세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20년은 군종교구의 영세자 수가 급감하여 0-4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5-9세를 제외한 44세 이하 전 구간에서 2010년 연령별 영세자 수보다 80% 이상 감소함

- 2020년 영세자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15,104명(49.9%), 여성이 15,181명(50.1%)으로 지난해보다 남성 비율이 3.4% 감소하였다.
- 14세 이하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영세자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15-19세에서는 남성 영세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세 남성 영세자의 비율은 85.0%로 여성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군종교구의 2020년 남성 영세자 수인 2,936명(표 32 참고) 중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0대 후반부터는 70대를 제외하고 여성의 영세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연령별 영세자 비율은 2019년과 비슷한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 10> 연령별 남녀 영세자 수



<표 28> 2020년 연령별 영세자 수 비교

구분	전체 영세자(명)	남성		여성	
		영세자 수(명)	비율(%)	영세자 수(명)	비율(%)
0-4세	3,618	1,827	50.5	1,791	49.5
5-9세	2,680	1,320	49.3	1,360	50.7
10-14세	1,412	716	50.7	696	49.3
15-19세	996	607	60.9	389	39.1

20-24세	3,078	2,616	85.0	462	15.0
25-29세	1,523	651	42.7	872	57.3
30-34세	1,487	587	39.5	900	60.5
35-39세	1,471	544	37.0	927	63.0
40-44세	1,512	557	36.8	955	63.2
45-49세	1,582	643	40.6	939	59.4
50-54세	1,640	654	39.9	986	60.1
55-59세	1,614	715	44.3	899	55.7
60-64세	1,673	731	43.7	942	56.3
65-69세	1,336	591	44.2	745	55.8
70-74세	1,259	646	51.3	613	48.7
75-79세	1,061	577	54.4	484	45.6
80세 이상	2,342	1,121	47.9	1,221	52.1
연령 미상	1	1	100.0	-	0.0
합계	30,285	15,104	49.9	15,181	50.1

- 2020년 영세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0-4세 영세자 비율이 11.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20-24세에서 10.2%로 높게 나타난다.
- 과거 연령별 영세자 분포를 보면 군종교구의 영향으로 대부분 20-24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군종교구의 영세자 수 감소로 0-4세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20-24세 남성 영세자의 비율은 2019년 26.0%에서 2020년 17.3%로 낮아졌다.
- 0-4세의 영세자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전히 높긴 하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그 비율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년 대비 유아 세례의 감소율에 영향을 받았음을 나타낸다.

<표 29> 2010년, 2019년, 2020년 연령별 영세자 비율 비교

구분	총 영세자 구성비(%)			남성 영세자 구성비(%)			여성 영세자 구성비(%)		
	2010	2019	2020	2010	2019	2020	2010	2019	2020
0-4세	13.0	14.5	11.9	12.3	13.6	12.1	13.7	15.4	11.8
5-9세	6.7	8.7	8.8	6.1	7.9	8.7	7.3	9.5	9.0
10-14세	5.4	4.4	4.7	5.0	4.2	4.7	5.9	4.6	4.6
15-19세	4.4	4.5	3.3	4.3	6.3	4.0	4.5	2.4	2.6
20-24세	21.0	15.2	10.2	35.2	26.0	17.3	4.8	3.0	3.0
25-29세	5.4	4.9	5.0	3.1	4.5	4.3	8.2	5.4	5.7
30-34세	5.8	4.6	4.9	3.8	3.5	3.9	8.1	5.9	5.9
35-39세	5.9	4.6	4.9	3.8	3.1	3.6	8.2	6.4	6.1
40-44세	5.4	4.6	5.0	3.9	3.2	3.7	7.2	6.1	6.3
45-49세	4.8	4.7	5.2	3.9	3.5	4.3	5.8	6.1	6.2
50-54세	4.7	4.6	5.4	3.9	3.5	4.3	5.6	5.8	6.5

55-59세	3.7	4.5	5.3	3.1	3.5	4.7	4.3	5.7	5.9
60-64세	3.1	4.7	5.5	2.7	3.9	4.8	3.7	5.6	6.2
65-69세	3.0	3.5	4.4	2.5	3.0	3.9	3.5	4.1	4.9
70-74세	2.7	3.3	4.2	2.4	2.8	4.3	3.0	3.8	4.0
75-79세	2.0	3.0	3.5	1.8	2.8	3.8	2.3	3.3	3.2
80세 이상	2.9	5.7	7.7	2.2	4.7	7.4	3.7	6.9	8.0
연령 미상	0.1	0.0	0.0	0.1	0.0	0.0	0.1	0.0	-
합계	100.0			100.0			100.0		

- 2010년 총 영세자 수와 비교하면 5-9세를 제외한 44세 이하 전 구간에서 영세자가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과 비교하면 15-24세 구간에서 70% 이상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 2019년 대비 남성 영세자는 34세 이하에서 60%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35세 이상에서는 60% 미만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표 30> 2010년, 2019년 대비 2020년 영세자 증감률

구분	총 영세자 구성비		남성 영세자 구성비(%)		여성 영세자 구성비(%)	
	2010년 대비 증감률	2019년 대비 증감률	2010년 대비 증감률	2019년 대비 증감률	2010년 대비 증감률	2019년 대비 증감률
0-4세	-80.2	-69.2	-80.2	-68.9	-80.1	-69.4
5-9세	-71.4	-61.8	-71.3	-61.2	-71.6	-62.3
10-14세	-81.4	-60.4	-80.8	-60.7	-82.0	-60.1
15-19세	-83.9	-72.7	-81.3	-77.7	-86.8	-57.9
20-24세	-89.6	-75.1	-90.1	-76.7	-85.2	-58.7
25-29세	-80.1	-61.5	-71.6	-66.2	-83.7	-57.1
30-34세	-81.8	-60.0	-79.3	-60.8	-83.1	-59.5
35-39세	-82.2	-60.8	-81.1	-59.2	-82.8	-61.8
40-44세	-80.3	-59.2	-81.0	-59.8	-79.8	-58.9
45-49세	-76.5	-58.6	-78.2	-57.8	-75.1	-59.2
50-54세	-74.9	-55.9	-77.5	-56.9	-72.9	-55.2
55-59세	-68.8	-56.2	-69.5	-53.3	-68.2	-58.3
60-64세	-62.1	-55.8	-63.7	-56.5	-60.8	-55.2
65-69세	-68.3	-52.9	-68.7	-53.8	-67.9	-52.2
70-74세	-66.7	-52.7	-64.2	-47.4	-69.1	-57.3
75-79세	-63.2	-56.6	-57.5	-51.7	-68.2	-61.3
80세 이상	-42.4	-49.2	-30.7	-44.3	-50.1	-53.0
연령 미상	-99.4	-94.1	-98.8	-85.7	-100.0	-100.0
합계	-78.5	-62.6	-79.9	-65.0	-76.8	-59.9

### (3) 교구별 영세자 수

- ▶ 교구별 영세자 수는 마산교구가 전년 대비 67.6% 감소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며 수원 64.0% 감소, 안동 62.8% 감소 등의 순임(전체는 62.6% 감소)
- ▶ 연중 예비신자 총수의 78.0%가 어른 세례를 받음. 지난 10년 동안 대개 80%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나 코로나19로 세례성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여 어른 영세자 비율이 다소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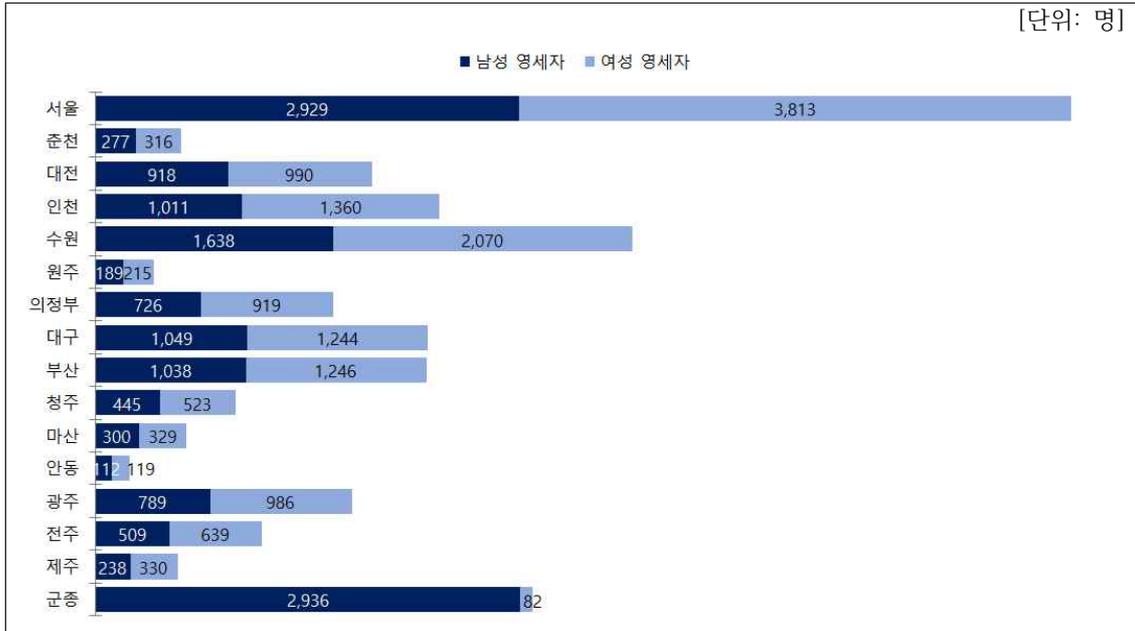
- 2019년 교구별 영세자 수와 비교하면 마산교구에서 67.6%의 감소율을 보여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수원교구 64.0% 감소, 안동교구 62.8% 감소 등의 순으로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군종교구 제외).
- 2010년과 비교하면 수원교구 79.6% 감소, 마산교구 79.4% 감소, 안동교구 7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세 교구의 영세자 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교구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2010년, 2019년 대비 2020년 교구별 영세자 증감률

구분	총 영세자 수			2020년 영세자 수 증감률	
	2010년	2019년	2020년	2010년 대비 증감률	2019년 대비 증감률
서울	30,611	16,925	6,742	-78.0	-60.2
춘천	1,963	1,273	593	-69.8	-53.4
대전	6,593	4,602	1,908	-71.1	-58.5
인천	10,309	5,742	2,371	-77.0	-58.7
수원	18,212	10,296	3,708	-79.6	-64.0
원주	1,369	889	404	-70.5	-54.6
의정부	6,464	4,107	1,645	-74.6	-59.9
대구	10,124	5,892	2,293	-77.4	-61.1
부산	7,770	4,933	2,284	-70.6	-53.7
청주	3,517	2,150	968	-72.5	-55.0
마산	3,056	1,943	629	-79.4	-67.6
안동	1,100	621	231	-79.0	-62.8
광주	6,291	3,836	1,775	-71.8	-53.7
전주	3,720	2,558	1,148	-69.1	-55.1
제주	1,530	1,123	568	-62.9	-49.4
군종	28,015	14,149	3,018	-89.2	-78.7
합계	140,644	81,039	30,285	-78.5	-62.6

- 2020년 영세자는 군종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안동교구와 대전교구에서 상대적으로 남성 영세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제주교구와 인천교구에서 상대적으로 여성 영세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 교구별 남녀 영세자 수



<표 32> 2020년 교구별 영세자 수 비교

구분	전체 영세자(명)	남		여	
		영세자 수(명)	비율(%)	영세자 수(명)	비율(%)
서울	6,742	2,929	43.4	3,813	56.6
춘천	593	277	46.7	316	53.3
대전	1,908	918	48.1	990	51.9
인천	2,371	1,011	42.6	1,360	57.4
수원	3,708	1,638	44.2	2,070	55.8
원주	404	189	46.8	215	53.2
의정부	1,645	726	44.1	919	55.9
대구	2,293	1,049	45.7	1,244	54.3
부산	2,284	1,038	45.4	1,246	54.6
청주	968	445	46.0	523	54.0
마산	629	300	47.7	329	52.3
안동	231	112	48.5	119	51.5
광주	1,775	789	44.5	986	55.5
전주	1,148	509	44.3	639	55.7
제주	568	238	41.9	330	58.1
군중	3,018	2,936	97.3	82	2.7
합계	30,285	15,104	49.9	15,181	50.1

□ 2020년 교구별 영세자 수는 서울이 전체의 22.3%로 가장 많으며 수원 12.2%, 인천 7.8%, 대구 7.6%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수원, 마산, 군중 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에서 교구별 영세자 비율이 증가하였다.

- 교구별 남성 영세자의 비율을 2019년과 비교하면 군종교구에서 크게 감소하였고 다른 모든 교구에서는 증가하였다. 특히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교구에서 남성 영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3> 2010년, 2019년, 2020년 교구별 영세자 비율 비교

구분	총 영세자 구성비(%)			남성 영세자 구성비(%)			여성 영세자 구성비(%)		
	2010	2019	2020	2010	2019	2020	2010	2019	2020
서울	21.8	20.9	22.3	17.0	17.2	19.4	27.2	25.0	25.1
춘천	1.4	1.6	2.0	1.2	1.4	1.8	1.7	1.8	2.1
대전	4.7	5.7	6.3	3.8	4.7	6.1	5.7	6.8	6.5
인천	7.3	7.1	7.8	5.8	5.7	6.7	9.1	8.7	9.0
수원	12.9	12.7	12.2	10.2	10.5	10.8	16.1	15.2	13.6
원주	1.0	1.1	1.3	0.8	0.9	1.3	1.2	1.3	1.4
의정부	4.6	5.1	5.4	3.6	3.9	4.8	5.8	6.4	6.1
대구	7.2	7.3	7.6	5.6	6.2	6.9	9.0	8.5	8.2
부산	5.5	6.1	7.5	4.3	4.9	6.9	7.0	7.4	8.2
청주	2.5	2.7	3.2	2.1	2.1	2.9	3.0	3.3	3.4
마산	2.2	2.4	2.1	1.6	1.9	2.0	2.8	3.0	2.2
안동	0.8	0.8	0.8	0.6	0.6	0.7	1.0	0.9	0.8
광주	4.5	4.7	5.9	3.7	3.9	5.2	5.4	5.6	6.5
전주	2.6	3.2	3.8	2.2	2.7	3.4	3.1	3.7	4.2
제주	1.1	1.4	1.9	0.9	1.1	1.6	1.3	1.7	2.2
군종	19.9	17.5	10.0	36.7	32.3	19.4	0.7	0.6	0.5
합계	100.0			100.0			100.0		

- 2020년 예비신자 중 어린 세례를 받은 사람은 78.0%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예비신자 수 대비 어린 영세자 비율은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린 영세자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34> 2010-2020년 연중 예비신자 총수 대비 어린 영세자 비율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68.7	67.8	82.9	80.7	84.8	84.3	83.4	84.5	83.7	85.5	82.1
춘천	66.4	65.0	73.3	75.9	78.4	73.7	75.2	84.2	84.3	86.0	72.2
대전	61.2	60.8	80.4	77.7	77.9	77.7	74.0	92.0	90.7	92.1	78.4
인천	65.0	63.5	81.2	79.4	77.7	82.7	80.4	84.6	82.1	86.3	73.6
수원	66.4	65.3	73.8	70.4	74.0	74.3	71.4	74.5	80.4	82.3	70.5
원주	71.9	79.2	78.2	84.4	74.9	84.8	77.3	84.6	82.8	90.8	86.5
의정부	66.3	65.8	82.4	83.1	83.8	84.7	86.1	92.9	90.6	93.9	84.2
대구	66.8	67.2	82.8	81.8	79.3	81.8	78.7	80.8	82.6	89.0	76.2
부산	69.9	69.4	89.0	85.9	83.8	83.4	87.5	84.8	85.9	83.0	71.3
청주	68.3	67.9	66.7	71.2	67.9	69.0	73.1	67.8	67.7	70.1	71.7

마산	65.1	61.1	79.0	76.3	76.6	77.8	74.9	81.9	88.4	91.6	77.1
안동	72.2	63.9	70.5	64.6	72.3	85.4	85.0	76.6	91.4	86.5	81.7
광주	60.8	62.5	69.0	62.9	67.4	58.7	65.0	66.9	72.3	72.5	69.7
전주	71.2	76.9	74.0	65.2	70.6	70.2	77.1	76.0	77.2	79.2	70.0
제주	55.6	55.4	70.9	69.1	60.0	77.9	70.0	61.1	71.0	73.2	58.1
군중	93.5	94.6	92.3	65.2	67.2	99.4	99.7	98.7	99.7	99.7	99.1
합계	71.9	72.2	82.5	73.3	74.7	82.8	83.5	84.8	85.4	87.7	78.0

## 2) 주일 미사, 판공성사

- ▶ 전체 신자 대비 주일 미사 참례율은 9.8%(주일 미사 참여자 수는 578,133명(의정부교구 제외)으로 전년 대비 46.5% 감소)
- ▶ 의정부교구 신자 수를 제외한 15개 교구의 미사 참례율은 10.3%
- ▶ 부활 판공성사 15.9% 참여(전년 대비 52.5% 감소), 성탄 판공성사 9.8% 참여(전년 대비 67.8% 감소)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2월 말 사순시기를 시작하며 전 교구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되었으며, 미사가 재개된 시기에도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미사 참례자가 대폭 줄었으며, 교구별 본당별 미사 집전이 가능한 상황과 시기가 달랐기에 미사 참례자 수를 집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매 주일 미사 참례자 수의 평균값을 조사하는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에는 주일 미사 참례자 수를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추세 파악과 연구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연구소에서는 각 교구에 주일 미사 참례자 수(실제로 미사가 거행된 주일 기준)를 제출하여 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였다(사목연 제2021-03호, 2021.3.5. 공문). 의정부교구는 교구의 판단에 따라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주일 미사 참례자 수를 집계하여 제출한 교구에서도 집계에 누락된 본당이 포함되어 있어 본 자료를 정확한 데이터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코로나19가 한국 천주교회 미사 거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대략적인 윤곽과 추세를 파악하여 사목적 대책 마련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 이렇게 집계한 2020년 주일 미사 참여자는 578,133명으로 지난해보다 46.5%가 감소하여 전체 신자 대비 미사 참례율은 10.3%(-8.0%p)로 나타났다(의정부교구 제외).
- 전년 대비 교구별 주일 미사 참여자 수는 수원교구에서 감소율이 55.5%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인천 -55.0%, 원주 -50.9%, 대전 -4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교구별 주일 미사 참여자

구분	주일 미사 참여자(명)		증감률(%)
	2019	2020	
서울	258,329	163,481	-36.7
춘천	20,996	12,661	-39.7
대전	73,100	42,671	-41.6
인천	102,158	46,016	-55.0
수원	185,981	82,760	-55.5
원주	14,594	7,172	-50.9
의정부	62,585	-	-
대구	93,831	58,004	-38.2
부산	75,486	47,775	-36.7
청주	34,443	20,611	-40.2
마산	27,769	17,075	-38.5
안동	9,718	5,721	-41.1
광주	58,951	37,487	-36.4
전주	38,390	23,484	-38.8
제주	14,280	8,790	-38.4
균종	10,076	4,425	-56.1
합계	1,080,687	578,133	-46.5

□ 부활 판공성사 참여자는 전년보다 52.5%가 감소(대상자의 15.9%가 참여)하였으며 성탄 판공성사는 67.8%가 감소(대상자의 9.8%가 참여)하였다.

<그림 12> 2010-2020년 주일 미사와 부활 판공성사 참여율 추이



<표 36> 2010-2020년 주일 미사와 판공성사 참여 추이

구분	주일 미사			부활 판공성사			성탄 판공성사		
	참여자 수(명)	참례율 (%)	증감률 (%)	참여자(명)	비율 (%)	증감률 (%)	참여자(명)	비율 (%)	증감률 (%)
2010	1,418,162	27.2	8.2	1,106,069	34.5	-0.1	1,087,023	33.9	-2.3
2011	1,231,240	23.2	-13.2	1,099,463	34.6	-0.6	1,079,526	33.4	-0.7
2012	1,219,307	22.7	-1.0	1,097,024	33.8	-0.2	1,074,425	32.6	-0.5
2013	1,156,591	21.2	-5.1	1,081,885	33.5	-1.4	1,055,634	32.2	-1.7
2014	1,148,736	20.7	-0.7	1,070,928	33.3	-1.0	1,016,632	31.3	-3.7
2015	1,171,751	20.7	2.0	1,028,849	31.7	-3.9	1,014,208	30.6	-0.2
2016	1,121,020	19.5	-4.3	1,025,559	31.7	-0.3	983,934	30.1	-3.0
2017	1,130,599	19.4	0.9	1,029,831	31.9	0.4	979,174	30.1	-0.5
2018	1,075,089	18.3	-4.9	991,648	31.3	-3.7	974,900	30.5	-0.4
2019	1,080,687	18.3	0.5	994,022	31.4	0.2	969,180	30.3	-0.6
2020	578,133	10.3*	-46.5	471,884	15.9	-52.5	311,627	9.8	-67.8

\* 의정부교구 제외

### 3) 혼인성사

- ▶ 한국 교회 내 혼인 건수는 총 7,915건으로 전년 대비 43.0% 감소
- ▶ 총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0.7% 감소
- ▶ 총 혼인 건수 중 교회 내 혼인 건수 비율은 2010년 6%대에서 2018년 5%대로, 2020년에는 3.7%까지 감소함

- 2020년 한국 교회의 혼인 건수는 총 7,915건(성사혼 3,282건, 관면혼 4,633건)으로 지난해보다 43.0%가 감소하였다. 교회 혼인에서 성사혼과 관면혼의 비율은 41.5% 대 58.5%이다. 2010년부터 성사혼의 비율은 37~39%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성사혼의 비율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이후 교회 내 혼인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에 처음으로 2만 건 아래로 줄어들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1만 건 아래까지 떨어졌다.
- 교회 혼인을 포함한 총 혼인 건수<sup>4)</sup> 역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은 213,502건으로 전년보다 10.7%가 감소하였으며 2010년보다 34.5%가 감소하였다. 교회 혼인은 2010년보다 60.4%가 감소하여 총 혼인 건수의 감소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4)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구동향조사」 참조

-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연기하면서 총 혼인 건수와 혼인 성사의 수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총 혼인 건수 중 교회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6%대였으나 2018년 5%대로 떨어졌으며 2020년에는 3.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2010-2020년 혼인 건수 추이



<표 37> 2010-2020년 혼인 건수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성사혼(건)	7,906	8,068	8,206	7,498	7,447	7,436
관면혼(건)	12,096	12,361	12,506	11,926	12,334	11,576
합계(건)	20,002	20,429	20,712	19,424	19,781	19,012
증감률(%)	-24.0	2.1	1.4	-6.2	1.8	-3.9
총 혼인 건수(건)	326,104	329,087	327,073	322,807	305,507	302,828
증감률(%)	5.3	0.9	-0.6	-1.3	-5.4	-0.9
교회혼 비율(%)	6.1	6.2	6.3	6.0	6.5	6.3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 대비 증감률(%)
성사혼(건)	6,618	6,000	5,561	5,160	3,282	-36.4
관면혼(건)	10,713	9,842	8,606	8,718	4,633	-46.9
합계(건)	17,331	15,842	14,167	13,878	7,915	-43.0
증감률(%)	-8.8	-8.6	-10.6	-2.0	-43.0	
총 혼인 건수(건)	281,635	264,455	257,622	239,159	213,502	-10.7
증감률(%)	-7.0	-6.1	-2.6	-7.2	-10.7	
교회혼 비율(%)	6.2	6.0	5.5	5.8	3.7	

#### 4) 견진, 병자, 영성체, 고해 성사

▶ 2020년은 코로나19로 모든 성사 활동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함

□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성사 활동이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견진성사는 지난해보다 61.4% 감소하였고, 병자성사는 43.5% 감소, 첫영성체 53.9% 감소, 영성체 57.3% 감소, 고해성사(판공성사 포함) 5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2010-2020년 성사별 참여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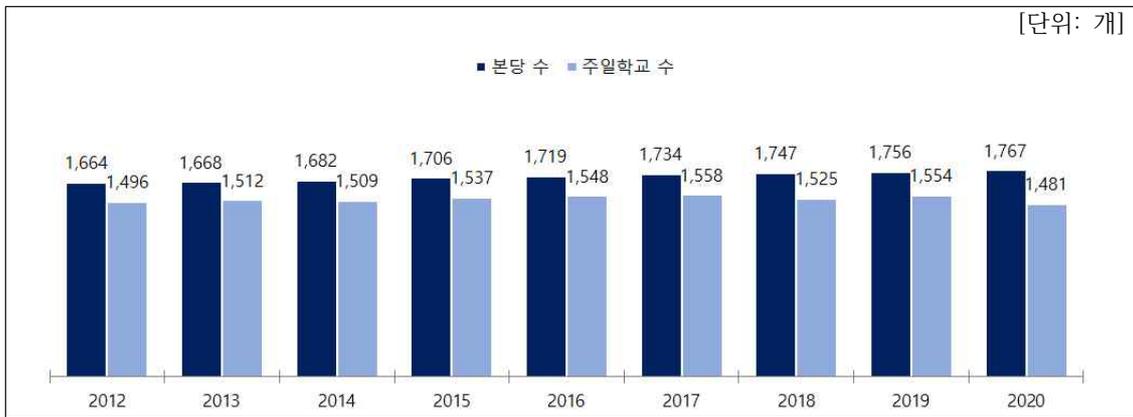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견진성사(건)	65,362	61,812	57,839	58,741	52,287	51,834
증감률(%)	-4.0	-5.4	-6.4	1.6	-11.0	-0.9
병자성사(건)	17,721	18,752	18,098	18,180	17,737	18,096
증감률(%)	4.9	5.8	-3.5	0.5	-2.4	2.0
첫영성체	24,683	28,649	22,142	21,169	19,894	19,539
증감률(%)	-47.8	16.1	-22.7	-4.4	-6.0	-1.8
영성체(건)	84,147,624	96,377,265	90,344,629	93,291,355	93,300,043	90,432,615
증감률(%)	0.1	14.5	-6.3	3.3	0.0	-3.1
고해성사(건)	5,267,382	5,133,665	4,894,960	4,665,194	4,555,580	4,283,662
증감률(%)	17.9	-2.5	-4.6	-4.7	-2.3	-6.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견진성사(건)	52,819	46,880	42,455	41,329	15,945	
증감률(%)	1.9	-11.2	-9.4	-2.7	-61.4	
병자성사(건)	20,399	19,773	20,242	21,134	11,948	
증감률(%)	12.7	-3.1	2.4	4.4	-43.5	
첫영성체(건)	20,504	19,904	17,832	18,581	8,561	
증감률(%)	4.9	-2.9	-10.4	4.2	-53.9	
영성체(건)	90,764,224	88,185,663	92,613,566	88,116,793	37,643,389	
증감률(%)	0.4	-2.8	5.0	-4.9	-57.3	
고해성사(건)	4,483,072	4,462,566	3,789,949	3,804,796	1,718,523	
증감률(%)	4.7	-0.5	-15.1	0.4	-54.8	

## VI. 주일학교

▶ 전국의 본당 중 83.8%가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7%p가 감소함

□ 전국 1,767개 본당 가운데 83.8%인 1,481개 본당에 주일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일학교가 있는 본당은 매년 89~90% 정도로 나타났으나(2018, 2019년 제외) 2020년은 83.8%로 전년보다 4.7%p가 감소하였다. 어렵게 유지되던 주일학교가 코로나19로 아예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면서 없어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2010-2020년 본당 및 주일학교 수 추이



<표 39> 2012-2020년 주일학교 수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본당 수(개)	1,664	1,668	1,682	1,706	1,719	1,734	1,747	1,756	1,767
주일학교 수(개)	1,496	1,512	1,509	1,537	1,548	1,558	1,525	1,554	1,481
비율(%)	89.9	90.6	89.7	90.1	90.1	89.9	87.3	88.5	83.8
주일학교 증감률(%)	-	1.1	-0.2	1.9	0.7	0.6	-2.1	1.9	-4.7

- 2012년부터 주일학교가 있는 본당만을 대상으로 조사

□ 초등부 주일학교의 학생 수는 2020년 현재 67,734명(남 31,431명, 여 36,303명)이며, 중등부는 23,100명(남 11,594명, 여 11,506명), 고등부는 13,344명(남 6,962명, 여 6,382명)이다.

□ 2020년 주일학교 학생 수는 2019년 대비 초등부 24.2%(21,643명) 감소, 중등부는 18.4%(5,211명) 감소, 고등부는 12.9%(1,982명) 감소하였다.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긴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주일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수를 나타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참고하여 응답한 본당 및 교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0> 2010-2020년 주일학교 학생 수 추이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 수(명)	증감률(%)	학생 수(명)	증감률(%)	학생 수(명)	증감률(%)
2010	118,766	-4.4	41,648	0.5	25,448	-1.2
2011	108,366	-8.8	38,769	-6.9	23,756	-6.6
2012	101,792	-6.1	37,538	-3.2	22,911	-3.6
2013	97,946	-3.8	36,190	-3.6	22,139	-3.4
2014	98,376	0.4	35,527	-1.8	22,428	1.3
2015	96,410	-2.0	33,366	-6.1	21,336	-4.9
2016	95,636	-0.8	31,464	-5.7	20,791	-2.6
2017	94,509	-1.2	29,606	-5.9	18,872	-9.2
2018	90,589	-4.1	27,910	-5.7	16,169	-14.3
2019	89,377	-1.3	28,311	1.4	15,326	-5.2
2020	67,734	-24.2	23,100	-18.4	13,344	-12.9

□ 2020년에는 초등부 주일학교 대상자의 46.8%가, 중등부에서는 26.7%가, 고등부에서는 14.0%가 주일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학생 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매년 나타나던 상급 학교에 진학할수록 학생 수 비율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 역시 주일학교 등록자 수를 통한 응답이거나 예년을 참고한 응답일 수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표 41> 주일학교 대상자 대비 학생 수 비율

구분	초등부 비율(%)				중등부 비율(%)				고등부 비율(%)			
	2017	2018	2019	2020	2017	2018	2019	2020	2017	2018	2019	2020
서울	64.2	60.5	59.8	51.2	27.5	27.5	28.1	26.4	13.8	12.3	13.4	14.8
춘천	52.3	52.3	48.7	46.3	29.9	34.9	36.5	34.5	18.4	18.5	19.4	19.9
대전	67.2	63.3	65.1	73.8	44.9	41.5	62.3	36.6	31.4	29.6	28.2	24.8
인천	59.6	53.6	55.1	44.7	29.2	28.9	30.6	27.5	13.9	12.7	14.8	15.4
수원	60.9	56.4	57.1	34.2	29.4	25.8	26.7	18.2	11.5	9.5	11.4	7.5
원주	58.6	56.2	50.7	42.6	38.0	39.6	31.5	34.1	20.0	28.2	18.7	18.7
의정부	61.4	62.1	57.7	44.7	33.2	29.9	30.2	25.7	17.1	13.1	13.5	13.4
대구	60.4	60.1	64.3	46.3	33.7	33.5	36.4	27.2	14.8	13.5	15.7	12.4
부산	66.6	61.4	61.0	49.3	35.6	31.9	33.6	29.6	14.6	13.3	14.8	13.8
청주	57.6	61.4	62.9	42.4	40.2	37.9	41.9	31.1	21.2	20.9	22.8	14.7
마산	64.4	62.7	57.1	46.5	37.1	35.7	31.6	32.4	18.3	17.2	17.7	19.0
안동	78.2	74.7	67.2	72.0	48.9	47.1	42.7	45.6	27.6	25.2	26.7	30.4
광주	59.6	56.7	57.0	53.9	39.1	37.4	38.9	35.4	20.1	18.7	19.5	21.1
전주	57.7	54.5	50.2	36.3	33.9	32.2	32.0	24.7	18.5	15.5	15.5	11.6
제주	73.0	52.5	55.3	46.9	33.4	28.5	35.4	30.8	14.9	13.2	12.4	10.4
군중	73.1	34.4	38.1	74.6	37.1	14.8	18.3	27.3	15.4	2.4	7.5	6.1
합계	62.3	58.6	58.5	46.8	32.6	30.7	32.9	26.7	16.1	14.3	15.3	14.0

## VII. 해외 선교

- ▶ 해외 파견 선교사 수는 1,137명으로 신부 245명(교구 신부 121명), 수사 57명, 수녀 835명임(평신도/수련자 68명 별도)
- ▶ 총 선교사 수는 2010년보다 26.8% 증가(신부 56.1% 증가(교구 신부 86.2% 증가), 수사 62.9% 증가, 수녀 25.4% 증가)
- ▶ 신원별 전체 인원 중 선교사 파견 비율은 2010년보다 모두 증가(신부 3.5%→4.4%(교구 신부 1.8%→2.6%), 수사 4.6%→8.5%, 수녀 6.8%→8.2%로 증가)

- 2020년에 선교사가 파견된 해외 선교국은 총 80개국으로 전년보다 1개국이 증가하였다. 아시아에서 레바논이, 아프리카에서 르완다가 추가되었으며 유럽에서 스위스가 제외되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22개국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아프리카(20개국), 남아메리카(17개국), 유럽(14개국), 오세아니아(5개국)와 북아메리카(2개국) 순으로 나타났다.
- 2020년 파견된 선교사의 수는 1,137명(수련자 제외)으로, 신부 245명, 수사 57명, 수녀 835명이 활동하고 있다(평신도/수련자 68명 별도).
- 선교사 수는 2010년보다 2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교사 중 수녀의 비중이 73.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신부와 수사의 파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2010년보다 신부는 56.1%, 수사는 62.9%가 증가하였다. 선교사로 파견된 교구 신부의 수는 2010년보다 8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륙별로 파견된 선교사 수는 아시아 571명(50.2%), 남아메리카 206명(18.1%), 유럽 133명(11.7%), 아프리카 118명(10.4%), 북아메리카 67명(5.9%), 오세아니아 42명(3.7%)이다.
- 2010년 대륙별 파견된 선교사의 비율과 비교해보면 남아메리카는 2010년 15.2%에서 2020년 18.1%로 파견 비율이 높아졌다. 북아메리카는 3.5%에서 5.9%로, 아시아는 49.1%에서 50.2%로, 오세아니아는 3.2%에서 3.7%로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 아프리카는 11.8%에서 10.4%로, 유럽은 17.3%에서 11.7%로 선교사 파견 비율이 낮아졌다.
- 가장 많은 선교사가 활동하는 국가는 필리핀으로 120명이 파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베트남 101명, 중국 64명, 미국 58명, 잠비아 53명, 일본 46명, 인도네시아 46명, 멕시코 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9년보다 18명이 증가하였으며 베트남은 17명, 이탈리아는 13명이 증가하였다. 반면, 페루는 2019년보다 6명, 프랑스는 5명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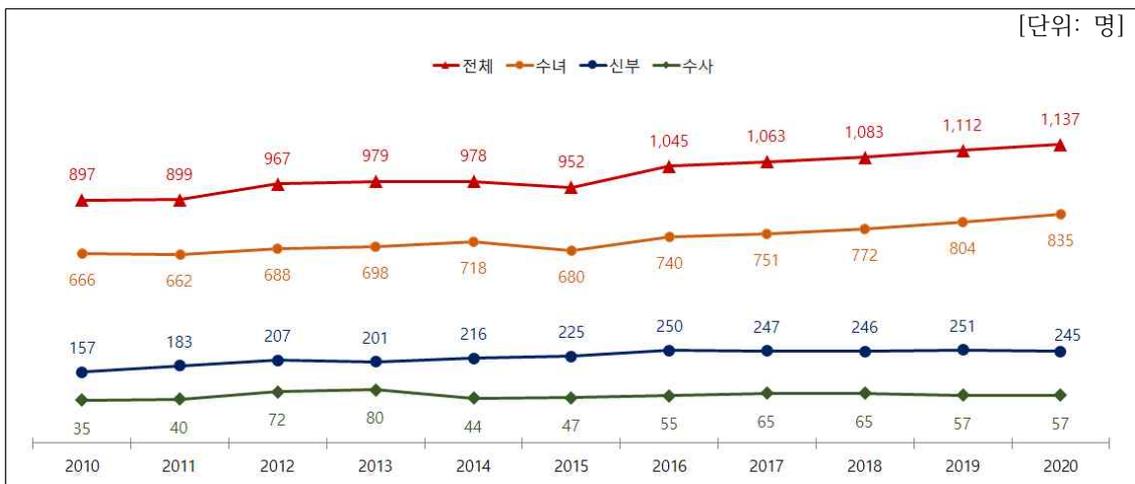
<표 42> 2010-2020년 해외 선교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선교국(개국)	75	77	78	78	76	74	79	82	81	79	80	
남아메리카	-	-	14	13	14	14	15	17	18	17	17	
북아메리카	-	-	2	2	2	2	2	2	2	2	2	
아시아	-	-	22	24	24	21	22	22	22	21	22	
아프리카	-	-	22	20	18	19	20	19	19	19	20	
오세아니아	-	-	3	4	4	5	6	5	5	5	5	
유럽	-	-	15	15	14	13	14	17	15	15	14	
선교사(명)	897	899	967	979	978	952	1,045	1,063	1,083	1,112	1,137	
신원별	신부 (교구 신부)	157 (65)	183 (79)	207 (94)	201 (82)	216 (90)	225 (99)	250 (107)	247 (111)	246 (113)	251 (123)	245 (121)
	수사	35	40	72	80	44	47	55	65	65	57	57
	수녀	666	662	688	698	718	680	740	751	772	804	835
	평신도/ 수련자*	39	14	29	15	22	27	42	38	29	52	68
대륙별	남아메리카	136	140	155	156	180	184	202	206	219	219	206
	북아메리카	31	33	44	46	47	48	49	37	42	46	67
	아시아	440	442	435	438	459	452	483	533	523	558	571
	아프리카	106	113	130	116	120	125	141	113	120	119	118
	오세아니아	29	31	30	29	31	32	33	36	42	40	42
	유럽	155	140	173	194	141	111	137	138	137	130	133

\* 2012년부터 평신도/수련자 수는 선교사 총 수에서 제외됨.

\* 2010-2011년 수련자는 평신도로 표시함(2012년부터 평신도 수와 수련자 수를 구분하였음).

<그림 15> 2010-2020년 선교사 수 추이



□ 각 신원별 전체 인원 가운데 선교사로 파견되는 인원의 비율을 계산해 보니 모든 신원에서 10년 전보다 파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구 신부와 수도회

신부를 포함한 전체 신부 중 선교사 파견 비율은 2010년 3.5%에서 2020년 4.4%로 증가하였으며 교구 신부는 1.8%에서 2.6%로, 수사는 4.6%에서 8.5%로, 수녀는 6.8%에서 8.2%로 증가, 수련자는 2012년 6.0%에서 2020년 20.3%로 증가하였다.

<표 43> 2010-2020년 신원별 전체 인원 대비 선교사 파견 비율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부(%)	3.5	4.0	4.4	4.1	4.4	4.4	4.8	4.6	4.6	4.6	4.4
교구 신부(%)	1.8	2.1	2.4	2.1	2.2	2.4	2.5	2.5	2.5	2.7	2.6
수사(%)	4.6	5.6	9.8	11.5	6.2	6.9	8.3	9.8	9.8	8.8	8.5
수녀(%)	6.8	6.5	6.8	6.9	7.1	6.7	7.3	7.4	7.6	7.9	8.2
수련자(%)	*	*	6.0	3.3	5.0	6.9	10.7	9.6	7.7	14.8	20.3

\* 2010-2011년 해외 선교사로 파견된 수련자 수는 평신도 수에 포함하였기에 2012년부터 표기하였다.

## VIII. 신앙 교육

- ▶ 코로나19 이후 종교 시설 내 대면 모임의 중단으로 모든 신앙 교육 이수자(참여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
- ▶ 성령 쇄신 운동의 감소율이 97.7%로 가장 크며 피정 93.0% 감소, 신앙 강좌 89.0% 감소, 성서 사도직 86.3% 감소 등으로 나타남
- ▶ 혼인 강좌는 상대적으로 낮은 53.0%의 감소율을 나타냄

- 신앙 교육 중 혼인 강좌 이수자는 교회혼(성사혼+관면혼) 건수와 함께 비교해 보았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교회혼 건수와 혼인 강좌 이수자의 증가와 감소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 2015년부터 혼인 강좌 이수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었으며 2020년에는 역시 코로나19로 집체 교육이 금지되어 교구별로 혼인 강좌가 취소되면서 53.0%의 감소율을 보였다.

<표 44> 2010-2020년 혼인성사 및 혼인강좌 증감률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회혼(건)	20,002	20,429	20,712	19,424	19,781	19,012
증감률(%)	-24.0	2.1	1.4	-6.2	1.8	-3.9
혼인강좌(명)	23,488	24,286	25,658	23,625	24,763	23,759
증감률(%)	14.2	3.4	5.6	-7.9	4.8	-4.1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교회혼(건)	17,331	15,842	14,167	13,878	7,915	
증감률(%)	-8.8	-8.6	-10.6	-2.0	-43.0	
혼인강좌(명)	21,993	18,760	14,632	12,954	6,084	
증감률(%)	-7.4	-14.7	-22.0	-11.5	-53.0	

- 모든 신앙 교육 이수자(참여자) 수는 2019년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코로나19로 2월 말경부터 대면 모임이 중단되면서 교구별로 교육 및 연수가 취소됨에 따른 결과이다.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것은 성령 쇄신 운동이다. 성령 쇄신 운동은 당해 연도 첫 연수 이수자 총수를 기재하는데 2010년부터 매년 증감률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2020년은 218명만이 참여하여 코로나19로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 다음으로는 피정 참여자가 93.0% 감소하였으며 신앙 강좌는 89.0% 감소, 성서 사도직은 86.3%가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초기에는 모든 교육이 중단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지침을 따르며 진행되는 강좌, 온라인을 이용한

강좌를 개설하여 해당 교육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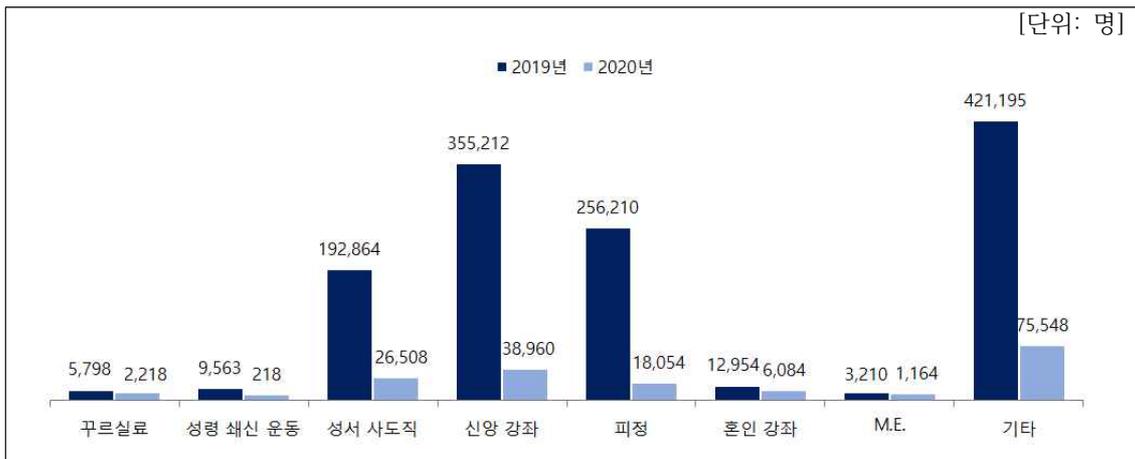
- 혼인 강좌는 신자들이 혼인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기에 다른 교육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53.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혼인 강좌 역시 코로나19의 국내 상황에 따라 대면 강좌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온라인 강좌 등을 개설하여 혼인 예정자가 수강할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혼인 강좌를 수강하지 못한 혼인 예정자에 대해서는 혼인 면담 시 필요한 혼인 교리를 알려주거나, 혼인 후 빠른 시일 내 혼인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사목적 배려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서울대교구).

<표 45> 2010-2020년 신앙 교육 참여자 수 증감률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꾸르실료	-16.1	-5.1	95.0	-52.7	-6.6	-6.3	16.2	-23.1	18.5	-6.5	-61.7
성령쇄신운동	20.6	-54.4	-14.0	-16.5	-17.9	13.1	-31.5	39.4	-5.9	-24.1	-97.7
성서사도직	-27.4	-23.8	19.8	2.4	34.3	-16.7	-10.0	-6.0	-6.7	31.2	-86.3
신앙 강좌	*	-16.7	-11.0	6.8	-5.9	-12.3	12.4	-15.5	-2.4	9.8	-89.0
피정	-3.0	-12.6	2.6	-3.9	-11.2	3.8	-4.0	-2.9	2.1	-3.9	-93.0
혼인강좌	14.2	3.4	5.6	-7.9	4.8	-4.1	-7.4	-14.7	-22.0	-11.5	-53.0
M.E.	25.3	-44.3	-2.3	-12.7	-7.3	-3.0	-2.8	-5.2	1.7	-7.3	-63.7
기타	*	5.2	-1.0	9.9	-6.9	2.8	-2.0	4.3	-9.1	-26.3	-82.1

\* 2009년 신앙 강좌는 기타 강좌를 포함하고 있어 비교하기 어렵다.

<그림 16> 2019년, 2020년 신앙 교육 참여자 수



## IX. 사회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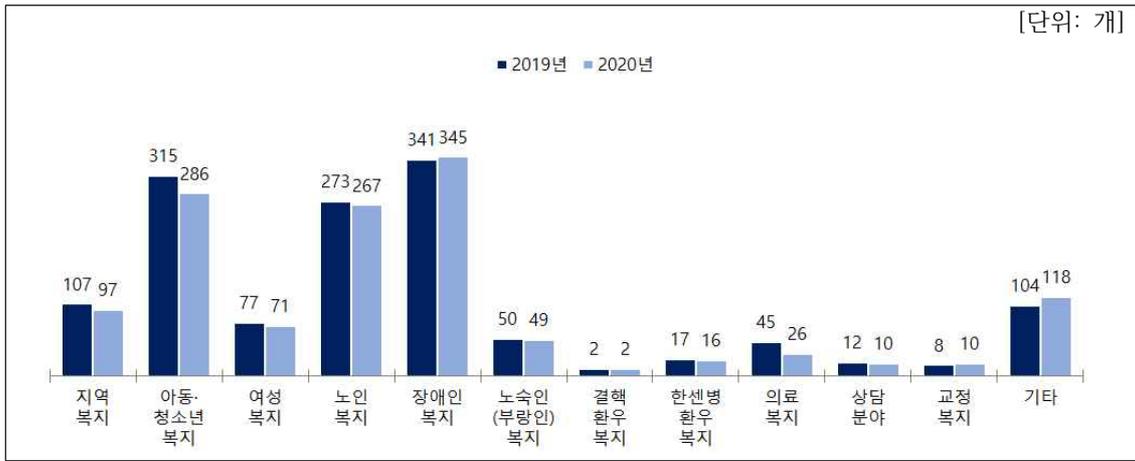
- ▶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사업의 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년 대비 감소함. 특히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에서 29개가 감소함
- ▶ 장애인 복지 사업은 2010년보다 85개가 증가함

- 지역 복지 사업은 전년 대비 10개 감소(자활후견기관 8개 감소),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은 29개 감소(청소년(아동) 전용 시설 15개 감소, 기타 22개 감소, 아동 양육시설 10개 증가), 여성 복지 사업 6개 감소(모(부)자 자립 시설 4개 감소, 가정 폭력 상담소 4개 감소), 노인 복지 6개 감소(전문 요양 시설 7개 감소, 재가 봉사원 파견 시설 8개 감소), 의료 복지 19개가 감소하였다.
- 2010년과 비교하면 아동·청소년 복지 사업은 13개 감소(공동 생활 가정 10개 감소, 청소년(아동) 전용 시설 4개 감소 등), 노숙인(부랑인) 복지 11개 감소(무료 급식소 5개 감소, 노숙인 쉼터 2개 감소 등)한 반면 장애인 복지 85개 증가(장애인 생활 시설 98개 증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13개 증가 등), 노인 복지 12개 증가(무료/실비 요양원 9개 증가, 노인 여가 복지 시설 12개 증가 등), 여성 복지 11개 증가(모(부)자 자립 시설 4개 증가, 가정 폭력 상담소 3개 증가 등)하였다.

<표 46> 2010-2020년 사회 사업 수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역 복지	98	111	111	114	119	109	115	110	109	107	97
아동·청소년 복지	299	323	335	355	369	364	348	335	337	315	286
여성 복지	60	73	63	69	76	76	69	72	74	77	71
노인 복지	255	260	267	267	272	296	287	284	280	273	267
장애인 복지	260	269	269	298	316	337	340	346	337	341	345
노숙인(부랑인) 복지	60	57	57	53	47	62	62	53	52	50	49
결핵 환우 복지	3	4	4	4	4	3	3	2	2	2	2
한센병 환우 복지	12	14	14	16	16	16	16	11	14	17	16
의료 복지	30	32	36	33	38	36	38	43	45	45	26
상담 분야	16	18	17	19	16	18	18	13	12	12	10
교정 복지	6	6	7	9	7	5	8	8	7	8	10
기타	71	79	95	90	90	98	106	106	97	104	118

<그림 17> 2019년, 2020년 사회 사업 수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을  
통해 바라본 사목적 시사점**

##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을 통해 바라본 사목적 시사점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을 기초로 하고 다른 한국 사회의 공식 통계들을 함께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주는 사목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 1. 고난과 우울에 지친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 제고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1항).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 위기의 한복판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사회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에서 현대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자리해야 하는지 성찰한 사목 헌장의 첫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56항). 2020년 연초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까지 전 세계를 휘감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한국 사회의 집단 면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코로나19의 특성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 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한국이 방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희생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위 계층이 중상위 계층보다 소득이 더욱 감소했고, 계층별로는 여성·20대 이하·임시직 노동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피해가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1)</sup>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감염 위험 속에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으며, 노동 환경도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규모 감염을 일으켰던 콜센터나 물류 센터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으로는 단기간의 집값 폭등과 주식 시장의 활황은 이 엄청난 사회적 재난 앞에서 더욱 큰 박탈감과 각자도생의 삶을 느끼게 하였다. 코로나 상황이 일 년 넘게 이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려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고,<sup>2)</sup> 특정 지역이나 타국민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 감정도 많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3)</sup> 이렇게 온 국민이 방역을 위해 개인의 일상마저 포기하는 상황에도 개신교 일각에서는 신앙과 종교 자유를 구실로 사회 공동체를 위협에 빠트리는 집회를 강행함으로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낮추기도 했다.

1) 통계청, 「한국의 사회 동향 2020」, 7면 참조.

2) “코로나 블루 얼마나 심각했나? 지난해 우울증 환자 100만 명 돌파”, 「메디게이트 뉴스」(2021.1.28.) 참조.

3) “코로나19 확산하면서 한국 사회 혐오·차별 심화”, 연합뉴스, 2020.10.17. 참조.

<그림 1> 자연 증가 추이, 1970-2020년



2020년은 코로나19와 함께 한국의 인구 통계 부분에서도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런 변화는 코로나 팬데믹처럼 어느날 갑작스럽게 온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개선과 회복의 가능성을 찾기는 더 어렵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는, 인구 자연 감소의 시작, 1-2인 세대의 급속한 증가, 60대 이상 인구 비중 증가, 역대 최저 출생자 수, 5개 시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 자치 단체의 인구 감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한국의 인구는 51,829,023명으로 전년 대비 20,838명(0.0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작성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었다. 이로 인해 출생자 수(275,815명)가 사망자 수(307,764명)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발생하였다(그림1 참조). 출생자 수는 2017년 처음으로 40만 명이 되지 않았고, 불과 3년 만인 지난해 30만 명에도 이르지 못했다.<sup>4)</sup> 이런 인구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급속하게 선진 사회에 도달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커다란 의문을 갖게 되었고,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 50% 이상이 전 국토의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몰려 살면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들(부동산, 교육, 고용, 환경 등)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바로 교회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른 여러 사목적 문제들에 대해 전 교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또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경험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세상을 상상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편 교회를 향해 제안한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의 복음적 상상력이 오늘 한국 사회와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실천되어야 하는지 한국 교회는 구체적, 실천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교황은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은 인류 공동체의 중요성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다(32항). 인류 공동체는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을 동등한 권리와 의무, 존엄성

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1.4. 참조.

을 지니도록 창조하시고, 형제자매로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셨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5.285항). 인류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기들 앞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결같은 당부는 바로 모든 종류의 고립과 차별을 낳는 ‘장벽 없애기’와 ‘연대의 공동체’를 향한 추구이다(35항). 교황은 만일 인류가 이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각자도생’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고 이는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36항).

한국 천주교회가 이 세계적인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우리 내부의 방역에서는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야전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들도 많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작년에 교회 내 사회복지 사업의 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신앙과 종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 있다. 이 새로운 종류의 세속화 물결 앞에서 단지 교회의 안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안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가난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서 함께하는 용기와 지혜를 청해야 할 것이다.

## 2.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과 전례 공동체의 복원

이번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근 수년 동안 이어져 온 다양한 지표들의 하락 추세가 이번 통계에서도 확인되었다는 점과, 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사 전례가 코로나19의 영향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의 인구 감소와는 달리 현재의 통계 수집 방법과 교적 관리 체제 안에서 한국 천주교 신자들의 자연 감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2020년 신자 총수가 5,923,3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8,631명 증가에 그친 것은 해마다 전체 증가 요인 가운데 20%를 차지했던 영세자 수가 8.4%인 30,285명에 그친 것이 크다. 이 영세자 수는 전년 대비 62% 감소한 수치이다. 또 4세 이하 유아세례와 15세-24세 연령대에서는 70% 넘는 감소세를 보였다. 영세자 수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예비신자의 경우에도 38,879명(전년 대비 58.6%)이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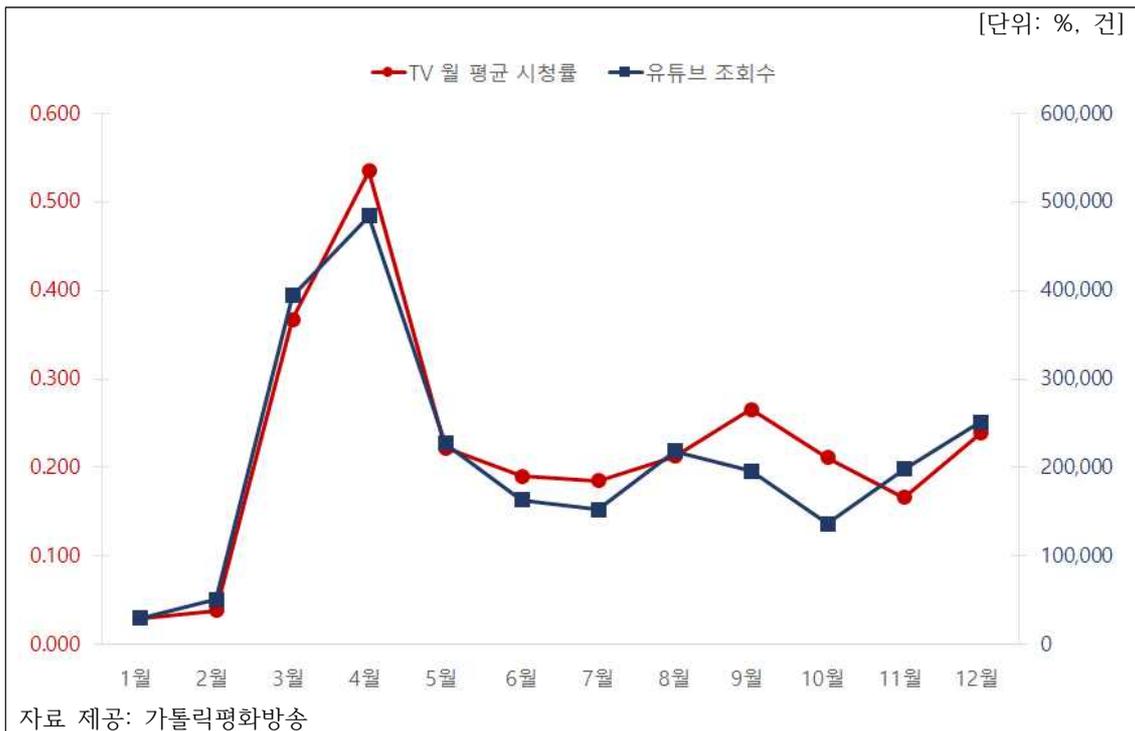
<그림 2> 2020년 신자 수와 영세자 수



혼인성사는 전년 대비 57%인 7,915건만이 베풀어졌고, 병자성사(57%), 고해성사(45%), 견진성사(39%) 순으로 감소했다. 주일 미사 참석자 수는 방역 당국의 호소로 각 본당에서 적극적으로 미사 참여를 일정 인원 이하로 제한했고, 상황이 악화되면서 본당의 주일 미사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어서 집계 자체에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고 집계의 정확성에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에는 주일 미사 참석자 수를 신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소에서는 여러 어려움에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현실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데이터를 교구에 요청하여 수집하였다. 의정부교구를 제외하고 2020년 각 교구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주일 미사 평균 참여자 수는 578,133명으로 전 신자의 10.3%이다.

한편,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작년 3월 초부터 급증한 지난 2020년 가톨릭평화방송(이하 평화방송) 텔레비전의 주일 미사 시청률은 0.187%로, 2019년도 시청률 0.030%에서 엄청난 시청률 증가 현상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에 평화방송 유튜브의 주일 미사 조회 수는 2,501,274회로서 이는 전년 대비 555%나 증가한 것이다. 결국 코로나19 아래서 주일 미사 참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많은 신자들이 평화방송의 텔레비전과 유튜브 미사를 통해 성찬례 참여의 열망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평화방송 외에도 각 교구와 본당들에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자들이 미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2020년 가톨릭평화방송 텔레비전과 유튜브 시청률



그럼에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껏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신자들의 신앙생활 복귀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가정과 일상 안에서의 신앙 실천이 강조되고, 불가피하게 방송과 유튜브 미사 참여를 권유하였지만, 이런 의식이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전례 헌장 11항)인 미사 전례의 중요성에 대한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코로나 시기 동안 이루어져 온 신자들의 신앙생활 양태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온라인 미사 전례가 신자들의 신앙 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사 전례는 단지 미사 시간에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당에서 베풀어지는 주일 미사 참례를 위한 공복재를 비롯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집을 나서기 전부터 이를 위해 준비되고 참여한다. 미사에서,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만남과 친교는 공동체의 삶과 신앙을 성장시킨다. 온라인 미사 참례와 불가피하게 축소 지향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역 상황 아래서의 미사 참례가 신자들의 신앙 의식과 전례 감각을 얼마나 변화시킬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기간에 신자들의 신앙 의식과 소속감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의정부교구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사 중단 기간에 적극적인 핵심 신자층에서도 32.4%가 ‘주일 미사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졌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 약 20%의 신자들은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교회 생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sup>5)</sup>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인 주일 성찬례 참여가 신앙 회복의 기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주일 미사의 회복이 지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집중해야 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다시 복음 선포와 예수님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일 미사가 중단되거나 신자들 간 대면 접촉이 어렵다고 해서 교회의 통상적 사목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능동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전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신자들 안에서 코로나에 따른 장애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더 다면적인 방식의 친교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온라인 활용, 하루의 같은 시간에 같은 지향의 본당 기도 등).

지금 이 시기를 교회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코로나 종식 뒤에 신자들이 교회로 복귀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뿐 아니라 여러 이유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까지 포괄하는 자세와 실천이 중요하다. 또한 그동안 우리의 본당 사목은 본당 안에서 가시적으로 활동하는 신자들 위주로만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루카 22,31-32) 이 특별한 시련의 시기에 본당 공동체 신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여러 시도를 해야 한다. 주일 미사

5) 의정부교구,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교회-의정부교구 신자설문 결과보고서」, 2020.7.5., 22-23면 참조.

참여의 신앙적 감각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일선 본당에서는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의 상황 안에서 홀로 고립되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어렵고 힘든 계층에 대한 교회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 3. 한국 교회 안의 국내 이주 사목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가난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뉴스 매체들의 한편을 장식하다 금세 사라지곤 했다. 작년 8월 동티모르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군산 앞바다의 개야도에서 노예와 다름없었던 생활을 폭로하였고, 12월에는 캄보디아 국적의 한 이주 여성 노동자가 간경화에 시달리면서도 한파 속에서 난방이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 산업 단지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면서 이들의 인간 삶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도 했고, 이를 빌미로 이주 노동자들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정책을 써서 당사자들과 인권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는 오랫동안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법무부의 ‘등록 외국인 통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총인구’를 산출해 왔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단지 한국 국적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국이라는 지리적 영토 안에 들어와 사는 모든 사람을 그 선교적 사목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따라서 교회는 2020년 12월 말 현재 2,036,075명의 체류 외국인(등록 외국인 1,145,540명,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 464,783명, 단기체류자 425,752명 포함)을 더 적극적으로 보듬어 안는 노력이 필요하다.<sup>6)</sup> 특히 71,042명에 달하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하는 난민 신청자들과 체류 외국인의 19.3%인 4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노력도 더욱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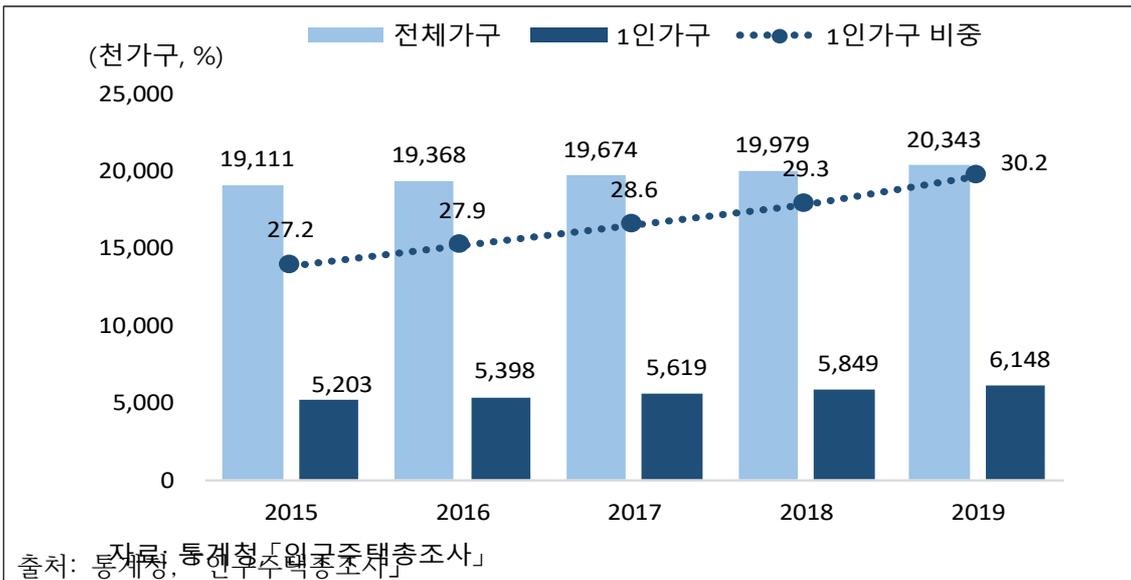
이런 점에서 주교회의 2021년 춘계 정기 총회에서는 금년도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사회적 약자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주 노동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에 힘쓰기로 결정하였다. 일차적으로 본당들에서 더 적극적으로 본당 관할 내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을 하고, 교구 이주사목위원회에서 이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많은 교구들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특별히 가톨릭 신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주 사목이 출발지 교회와 도착지 교회의 상호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기에 이들에 대한 협력은 다차원적인 협력 아래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래 수년 동안 한국 교회는 적극적으로 해외에 선교 사제들을 파견하고 있지만 선교지는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지금 우리 옆에 그들이 와 있다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2020년 12월 호 참조.

#### 4. 고령 사회의 등장과 1,2인 가구의 증가 - 가정 사목의 전환

사회와 교회에 관련된 각종 통계를 다룰 때마다 빠짐없이 접하는 게 바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다.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오늘날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한국의 상황에서 현재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 기조는 자유주의적 사조와 함께 청년 세대가 결혼을 감당할만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악화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교회 역시 그 해소를 위해 정부나 사회단체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고령화 경사 정도는 한국 사회보다 더 가파르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동일 연령대의 주민등록 인구 비율보다 훨씬 더 많고, 10대 이하에서는 더 적은 비율이다. 또 20대 초반 이하에서는 인구 대비 신자 비율에서 평균인 11%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신자들의 성사혼과 관면혼을 포함하는 교회혼인 수도 점점 줄어가고, 유아 세례나 첫영성체, 주일학교 현황 등을 보면 새로운 세대로의 신앙 전수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교회가 좀 더 본당을 중심으로 한 교회 전반을 청년 친화형으로 바꾸어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 사목이 본당 중심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중심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최근 서울 대학동 고시촌을 중심으로 한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의 노력은 참고할 만하다.<sup>7)</sup>

<그림 4> 1인 가구 비중(2015-2019년)



고령화와 함께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0%를 넘는 현실은 이제 한국 사회가 확실히 개인 중심의 사회로 돌아섰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019년에 1인 가구 비율은 정부가 가구원 수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0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

7) 배선영, “서울 빈민사목, 고시촌 독거 중장년 위한 ‘참 소중한...’ 센터 열어”,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2021.3.23.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92> 참조.

어설 정도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왔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전체 1인 가구의 18.2%(111만 8,000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30대 16.8%, 50대 16.3%, 60대 15.2%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1인 가구 비중이 45.3%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같은 연령대의 남성중 1인 가구 비중은 21.6%에 그쳤다. 남성은 30~50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58.1%로 높은 데 비해, 이 연령대의 여성 중 1인 가구 비중은 36.5%에 다다랐다.<sup>8)</sup>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1인 가구 비중은 이들을 향한 교회의 복음화 노력이 현재와 같은 핵가족을 상정하는 가정 사목적 관점에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가난한 청년 세대와 고령의 독거 노인들을 위한 사목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

<그림 5> 독거 노인 비율 및 가구 수(2000~2020년)



## 5. 사제 지속 양성을 위한 과제

2020년 한국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제들의 수는 5,480명(교구 사제는 4,582명)에 달하고, 사제들의 소임도 본당 사목 외에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과거 교회의 성장 국면에서는 사제들이 늘어나는 본당과 사목 현장에 대처하기 힘들었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수의 사제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제들은 더욱 다양한 사목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사제들에 대한 교회 내외적 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인간적 조건의 향상으로 사제들 개인의 성숙과 발전에로의 갈망 역시 높아지면서 이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별히 고령화된 사제들의 지속 양성에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제 고령화 현상은 2020년 통계에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0대 사제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50대 후반

8) 통계청,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0.12.8. 참조.

부터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60대 후반은 전년 대비 20%나 증가하였다. 한국 사제들의 65세 이상 비율은 15.1%에 달했고, 원로 사목자도 전체 사제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결국 풍요롭고 충실한 사제 지속 양성의 체계 안에서 고령화된 사제들의 성숙과 발전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 65세 이상 사제 비율 추이(2012-2020년)



교구를 중심으로 각종 연수와 피정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내외 연수와 연학에 참여하는 사제들의 수는 전체 사제 수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지만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시간만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하여 2014년 주교회의 차원에서 엠마오 연수원을 설립해서 안식년 사제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사제 지속 양성에 대한 실천이 논의되고 있다. 신학교의 양성 기간과 사제 수품을 끝으로 더 이상 체계적인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사목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영적으로 쉽게 탈진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지나친 사제 중심을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만큼 하느님 백성에 봉사해야 하는 직무 사제직의 막중함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사제들의 지속 양성, 특별히 고령화된 사제들의 양성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통계는 한 사회의 실상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감추기도 한다.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통계 수치들만 바라보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영적 세속성’이라 부르면서 비판하셨다. 영적 세속성에 빠진 교회는 폐쇄적인 엘리트 집단이 되어, 멀리 있는 이들이나 그리스도를 목말라하는 수많은 사람을 찾아 나서지도 않는다(『복음의 기쁨』, 95항). 교회의 사목이 통계를 참조하는 것은 다수의 욕구와 평균적 기호에 복음을 맞추는 상업주의 마케팅을 하고자 함이 아

니다. 오히려 사목은 통계의 이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예민한 결핍감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알아내고 온 힘을 다해 그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통계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일으키는 신앙적 무력감은 교회에 크나큰 위기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위기는 ‘코로나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던 기존의 위기들을 코로나가 드러낸 것’이라는 말이 진실에 가깝다. 코로나는 우리가 회피하고자 했던 문제들을 가감 없이 노출하고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교회가 쇠신되어야 하고 더욱더 하느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느님의 사랑 실천을 삶으로 드러내는 증언과 증거의 도구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요청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면 그에 대한 대처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 시대의 도전은 그리스도인 신앙과 교회적 삶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교회가 자신의 본질적 신원과 사명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고 있다. 그동안 여러 이유에서 교회를 에워싸고 있던,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비추어서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히 벗겨내고 다시 복음의 근본과 본질로 돌아갈 때이다.